



# 時計塔

SIGETOP



2009년 7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6권 3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李成春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李惟贊 徐亮 盧在燭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銘冕 李熙景 許善行

## 취임사

###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열며

이성준(70)



존경하는 서울의대 동문여러분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우리 동창회의 회장으로 능력이 없는 저를 뽑아주심에 겸손된

마음으로 받아드리며 또한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많은 동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면을 통하여 모든 동문여러분에게 인사와 함께 저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미국의 어느 단과대학 동창회보다는 월등한 업적과 탁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서울의대 동문개개인이 훌륭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이런 단체를 잘 이끌어온 전직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의 개인적 희생과 봉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본 동창회에 대하여 어떤 근본적인 구조나 기능을 변혁시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매년 Annual Convention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새로 선출된 회장과 임원진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행사인데도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장직을 맡게 되며, 그런 면에서 회장 개인이나 임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하여 이 행사를 전적으로 운영하는 manager를 두고 회의를 준비한다면 한층 빠르고, 쉽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대략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분을 general manager라 부르던, convention planner라 부르던 사람이 현직 회장과 상의하여 장소 선정, 가격 협상, 골프토너먼트 준비, science session의 speaker의 선정과 그동안 해온 감사들의 pool 보존 등등을 매년하다 보면 manager의 경험과 실수, 보강사항 등이 쌓여서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사무장 김해경씨가 많은 수고를 하여왔습니다. 이런 것을 김해경씨가 맡아서 하든 아니면 이 컨벤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job을 주어 계획 진행 완료 후내 내년을 위

하여 그때 다시 일을 맡김으로서 연속성이 있는 방법을 택하자는 제의입니다.

둘째, 우리의 신문 '시계탑'입니다. 한정된 독자와 극히 제한된 원고투고자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도 잘 지켜온 것은 시계탑 편집위원들의 크나큰 노고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편집위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사에 맞는 특집계획, 예를 들면 현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깊은 보도 분석들을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실는 것, 또 그 다음호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관심 있는 issue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원고부탁이나 기획기사입니다. 앞으로 몇 번은 어떤 특정 topic에 대하여 전문인에게 맡겨 기사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tem cell에 대한 기획기사와 심층취재 등.

또 각 지부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문들의 동정을 좀 더 많이 보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남가주 동창회장 당시 2년간 '남가주 시계탑'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편집부장에게 항상 주문한 것이 소위 '동네방네 소식' 비슷하게 편집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 남가주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 어느 동문은 그 신문 매호를 간직하였고 어느 동문은 언제 다음호가 나오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재미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창회지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미있게 꾸렸으면 합니다. 가끔 편집후기에 원고부족을 호소하고 또한 좀 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편집위원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끝으로 2010년 convention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research와 현장답사와 숙고 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 디즈니랜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와 다양한 놀이터, 많은 볼거리 먹거리 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많이 오셔서 보시고 즐기십시오.

언제나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축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 이임사

### 우리 모두 좀 더 노력한다면

윤효윤(69)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여러분  
지난 일 년 동안 저와 저희 임원진들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일 년이란 세월이 지나 우리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 이성준(70)동문과 그 임원진이 동창회의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 운영진에게도 끊임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와 저희 임원진들도 지난 일 년간 경험을 토대로 우리 동창회를 위한, 진지하고 꾸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 년 전에 회장직을 맡으며 취임사에 말씀드렸듯이 동창회를 위하고 동창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I promise to lend myself to you, when you lend me your ear."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별로 봉사를 해 드린 것이 없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모교 동창회 하권의 명예회장이 하신 말씀 "The day I stop giving is the day I stop receiving"이 생각납니다. 회장직을 맡을 때의 그 "deep sense of humility"를 그대로 간직하며, 이제 이 회장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를 위해 참여 봉사하는 것이 저를 생명과학자로 교육시켜주고 의사로서의 소명감을 길러준 모교 서울의대를 위해 은혜를 갚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도 늘 열려하고 계시던 issue 중의 하나인 것은 우리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가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장단이나 그 임원진 또는 각 committee chair들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 일반 동문들께서는 무조건 믿고 신임을 하시기에 자신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credibility 때문이던가, 또는 우리 동창회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단체로 생각하시는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가 짐작도 해봅니다. 또 미래를 과녁치 않고 오늘날을 위해 사는 그런 생활, 사고방식도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컨벤션 때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러한 modus operandi, modus vivendi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이 외에도 다른 선후배 동문들의 앞날도 함께 배려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 동창회를 더욱

튼튼한 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어집니다. 무조건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번 Annual convention이 미시간에 있는 Ritz-Carlton Hotel에서 아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동문께 다시 한 번 지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시간의 아름다운 여름철 기후를 만끽하시며, 좋은 골프 코스에서 골프를 즐기셨으며, 흥미로운 Detroit Institute of Arts, Greenfield Village, Rouge Assembly Plant의 tour, 또 멋진 Mrs. 광승용(71)의 활기찬 line dance 감수도 즐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을 능가해 120여명의 동문들과 그 부인님들에게서 참석을 해주시고 또 한국 모교 동창회에서 오신 강신호 명예회장님, 박용현 현회장님, 김종화, 김성덕 부회장님, 또 의과대학 학장 임정기 박사님, 또 연사로 참석하신 김유영(69)교수, 황도영(83)박사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로서 동문서주하며 일을 해주시고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멋지게 사회를 봐주신 오동환(71)동문, 또 흥미 넘치는 topic들과 훌륭한 speaker들을 recruite하신 장현식(70)동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Basic science로 많이 치중되었던 과거의 scientific session과는 달리, 이번에는 medical invention, nutritional supplement and medicine, plastic surgery for asians sun and skin care, cognition & spirituality, medical mission, How to welcome our death, stem cell therapy for the host of diseases 등 아주 흥미 있고 다양한 topic들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모든 동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흥미를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 첫날 class reunion의 evening program 순서를 맡으셔서 사회를 해주신 이민우(67)동문의 재치와 익살, 텔런트 쇼와 grand banquet의 사회를 맡아주신 양찬기(63)동문의 노련하신 사회습씨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적인 컨벤션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동문들의 성원과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저와 함께 지난 일년동안 동고동락을 하신 여러 임원진과 그 부인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내년 3월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뵙겠습니다.

**Invitation of Speakers for the 2010 Scientific Convention**  
Disneyland Resort: Paradise Pier Hotel  
California  
March 17(Wed) ~ March 21(Sat), 2010  
SNUCMAA Scientific Committee

# 2008-2009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09년 7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Ritz-Carnton Hotel / 300 Town Center Drive, Dearborn, MI

참석자:

- 강수상(53) 한성수(60) 임종원(60) 조명호(62) 권정덕(64) 황규정(65) 이한중(65)
- 최영자(66) 구경회(65) 조의열(66) 문광재(68) 김희주(68) 윤효운(69) 변영석(69)
- 장현식(70) 이성춘(70) 김유식(71) 오동환(71) 오상현(71) 강태수(71) 곽승용(71)
- 오용호(72) 서인석(73) 조철영(75) 장연웅(78)



Proxy:

- 노용면(55) 김응식(55) 정구영(57) 이만택(58) 이운순(58) 김병석(59) 김은섭(59)
- 최종진(59) 이재승(61) 한혜원(61) 이상무(62) 손영진(62) 김태웅(63) 한기현(63)
- 이유찬(64) 이홍표(64) 조동준(64) 한태진(64) 김태환(64) 이명희(66) 이근웅(67)
- 한영수(67) 이건일(68) 석창호(72) 권영조(72) 황용규(72) 김풍영(72) 문대욱(73)

1. 오동환 총무의 성원보고(총 89명중 33명 참석과 30 Proxy)와 개회 선언.
2. 타계하신 민병덕(59), 오정환(61), 송관호(64) 동문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
3. 2008-2009 제1차 Delegate Meeting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재정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4. President's report: 그사이에 연례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대략 120명 동문들께서 등록을 해주셔서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감사의 말씀을 하심.
5. 총무 (오동환) 보고: 특별 보고 사항 없음.
6. 재무 (장연웅) 보고: Annual convention financial report, General Fund report와 Green project Fund report를 제출 (별첨)

- 1) Annual convention financial report: Balance : \$87,298 (as of 6/30/2009)
  - a. Revenues: \$121,139(Donation \$30,164) b. Expenses: \$22,841
  - c. 6월 30일후에 들어온 donation을 합치면 총 합계가 \$43,000을 보고
- 2) General Fund: Balance: \$71,006
  - a. Revenues: \$145,621 b. Expenses: \$ 74,615
- 3) Green project: Balance: \$15,185
  - a. Revenues: 2002부터 들어온 Donation 총액: \$32,920
  - b. Expenses: \$17,735 보고서를 review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함

### 7. Committee reports

- 1) Finance (오상현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2) Scholarship Management Committee report (이명희 위원장, 보고서 제출):
  - a. 보고서에 의하면 6/30/2009 현재 잔고가 \$302,101임. 1/1/2009에는 \$289,399였음. 4.4%가 증가. (S&P 500: 1.8% 증가)
  - b. John Baek이 financial advisor임.
  - c. 기록보관과 투명성에 대해서 discussion.
- 3) Nominating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차기 회장 (2010-2010)으로 정인웅(7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채규철(59), 김택수(63), 추재욱(63), 조동준(64),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한영수(67), 오동환(71), 장연웅(68) 등10명의 이사를 monimation하여 만장일치로 인준함 .
- 4) Scholarship (오용호 위원장):
  - a. SNUCAA 장학금: 매년 \$20,000로 책정해서 \$10,000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지원한 미주 한인교포학생 중 5명을 뽑아서 각자 \$2,000을 지급하고, \$10,000은 Green project 일환으로, 미국에 elective rotation으로 오는 본교 학생 5명에게 \$2,000씩을 지급함을 보고.
  - b. Dr. Kenneth Kwan Ho Song Scholarship: 돌아가신 송관호 선생님이 유언으로 미주 동창회에 \$100,000을 기부하기로 약정하심. 금년에 \$10,000을 기탁하셨습니다. 송관호 동문 가족의 뜻에 따라, 일 년에 \$10,000을 미주동창회 Scholarship Fund에 전해서, \$5,000은 본교 Scholarship Committee의 추천을 받은 본교 의과대학 학생(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명에게 주고, \$5,000은 미주 동창회 Scholarship Committee에서 추천받은 Korean-American student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 c. Dr. 오태요 장학금: 오태요(62)동문, 오 동문의 아드님과 아드님의 장인, 세 분이 장학금은 만드셔서 지난 5년간, 매년 \$10,000을 서울의대 재학생 2명 (\$5,000/student)에게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학금 관리를 미주 동창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장학생 선출은 본교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할 것임. 본교 학생 담당 부학장님이 공고를 해서, 취지에 맞는 학생 5명을 추천해서 보내음.
  - d. 6월 23일에 가진 Scholarship committee에서 송관호 장학금 최종 선발자 1명, 오태요 장학금 최종 선발자 2명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인준함.
  - e. Scholarship 운영에 대해서 토론함. Scholarship selection process는 non-discrimination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뉴욕 중앙일보 광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또한 비용 관계상 다른 신문 광고는 어려움을 보고, 강수상 전 회장님께서 Web site를 이용하는 방법을 건의하심.
- 5) Green project (서인석 위원장):
  - a. 서인석 위원장이 지난 9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하고 이번에 Green Project Committee의 새 Chair로 백시환(99)동문 이 되심을 알림.
  - b. 모교 학생들의 동아리 MEXIM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도 13명이

미국으로 elective rotation을 하러 Columbia에 4명, Temple에 4명, Minnesota에 2명, Harvard에 1명, Yale에 1명, Down State에 1명이 오기로 됨. 지난 6월 23일에 가진 Green Project Committee meeting에서 6명의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음.

- c. 동창회에서 Green Project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요망.
- 6) Silver project Committee- 2009년 4/28(화)부터 5/9(토)까지 11박 12일로 동부 유럽여행을 하였습니다. 윤효운 회장께서 보고.
- 7) Counselor(이한중)- 보고 사항 없음.

### 8. New Business:

임종원(60): retiree의 statistics가 있느냐고 물으시고, retiree들에게 컨벤션 등록비를 감해주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 질문하심. 다음 회장단에서 의논하기로 함.

### 9. Unfinished business:

윤효운회장께서 1980년 초부터 시작해서 1990년까지 미주동창회에서 모금한 돈과 China Medical Fund matching fund의 missing record와 불분명한 fund의 행방에 대한 back ground 설명을 하심.

1) 자초지종을 알기위해서 강수상(53)과 구경회(65) 동문을 초청하였음. 강수상 동문의 부탁을 받고 구경회 선생님이 facts finding을 하셨습니다. 구경회 동문이 그동안 그때 관련 되었던 여러분(김정준, 홍광의, 동창회 본부 비서, 동창회 CPA 포함)들과의 전화 인터뷰와 뉴욕 동창회본부의 서류 및 시계탑의 기사들을 토대로 알아내신 사실들은 아래와 같음.

a. China Medical Board는 뉴욕에 본부가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의학발전을 돕기 위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서울의대에도 1953년부터 매년 \$50,000씩 research fund를 주었음. 1976년에 이 research fund가 중단되고, 만약 서울의대에서 fund raising을 하면 \$250,000까지 matching fund를 주겠다고 제의. 본교 (당시 권의혁 학장)와 미주동창회(당시 동창회장, 김정준 52)에서 \$250,000을 모금하기로 함. 본교에서 \$150,000을 모금해서 한국의 은행에 보관하고, 미주동창회에서 모금한 \$100,000은 Chase Manhattan Bank에 두기로 결정.

b. 1976년도부터 모금을 해서 미주동창회에서 \$100,000을, 본교에서는 \$150,000을 모금함. 그때의 original idea는 재미동창회가 미국에 있는 돈을 관리하고, 이 기금의 이자로 본교에 research fund를 주기로 함. 이 기금 관리는 3 executive officers(미주 동창회장 포함)가 하기로 함. 임기는 5년. 그 당시 동창회장이었던 김정준 동문의 수고로 미주동창회의 전체 모금액 총액은 대략 \$160,000이 되었음. 3명의 executive officer가 기금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fund management는 김정준 동문께서 1990년까지 혼자 하심. 모든 Chase Manhattan Bank report는 김정준 동문께 갔고, 그 후 동창회장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이 fund management에는 관련 안함.

c. 시계탑에 의하면, 그 후에 China Medical Board에서 추가로 \$850,000을 받고, 모금한 돈 대략 \$200,000(이자 포함)을 합쳐서, 1990년 bank report에 의하면 원금이 \$1,050,000이고 이자가 \$500,000로 총액이 \$1,550,000 이었음.

d. 김정준 동문과의 통화에 의하면 이 fund는 본교 의과대학을 위한 기금으로, 본교 학장과 경리과장만이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미주에서는 아무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함.

e. 그 이후에 미주동창회와 한국동창회의 combined meeting에서 이 fund manage를 위한 Managing Committee를 만들고 committee member는 미주동창회장 김정준, 모교 학장, 모교 경리과장과 본국 동창회장으로 구성하였음. 그래도 실제 management는 김정준 동문께서 하셨습니다.

f. 1990년 11월 달에 본교 김상인 학장과 홍광의 교무학장보가 이 fund를 한국으로 이송하기위해 뉴욕에오셨고, 김정준 동문께서 fund이전을 동의하심. 다시 두 분이 시카고로 오셨고, Delegates meeting (당시 동창회장: 강수상 1990 - 1991)에서 그 fund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 김상인 학장이 \$1,000,000은 한국으로 가져가고, \$550,000은 미국에 두기로함. \$1,000,000을 한국으로 가져간 기록이 있으나, 이 돈을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음. 그때의 bank account number 기록도 없고, 어떤 Tax ID number를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음. 김정준 동문도 아무 기억이 없다하심. 김동문이 은퇴하시면서 서류들도 버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신다함.

g. 미국에 두기로한 \$550,000의 기록은 없음. 한국으로 가지고 갔다고도 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누가 인출했다는 기록도 없음. 김정준 동문에 의하면, 1991년 이후에는 Chase Manhattan Bank에서 아무 report를 받지 않으셨다함. 김정준 동문에 의하면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은 본교학장과, 본교 경리과장만 있고, 미주 동창회장은 관계하지 않았음. 동창회에 관련했던 CPAs (호민선 ~1992, 박성남 1992~)들도 China Medical Board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다함.

h. 1991년 7월 대의원회 기록을 보면 김상인 학장이 \$1,000,000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면서, 매년 미주 동창회에 research fund로 \$7,000 정도를 보내주시기로 하고, 앞으로 성과를 보아 \$10,000으로 증액한다는 학장실의 통보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 1991년 3월에 \$1,000,000이 한국으로 간 것 같고, 그해 강수상 동창회장이 한국 방문시 직접 \$7,000을 가지고 오심. 홍광의 선생에 의하면 이 research fund는 영구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었다 함. 강수상 선생님의 기억에의하면 그 후에 온 돈이 합춘의학상, 합춘대상 등 다른 명목으로 왔다함. 이 미주 동창을 위한 research fund가 2003년 이후로 중단됨.

i. '그러면 미국에 남아있던 \$550,000은 어떻게 되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은행에서는 account 기록을 10년만 보관을 한다함. 변호사와 은행에 문의한 결과 10년이 지났어도 legal action을 하면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견해임. Account number나 tax exempt number가 있으면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지만, 그 번호는 아무도 모른다함. Legal action을 하려면 비용이 들것임.

2) 강수상 전회장님께서 김상인 전 학장에게 위의 사실들을 알리고, 견해와 해답을 부탁드리려 보내신 편지를 읽어주심.

3) 매년 보내 주기로 했던 미주 동창을 위한 리서취 펀드를 계속 추구하도록 촉구.

4) 긴 토론 후에 'Missing \$550,000의 행방을 계속 추구하느냐?'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계속 추구하기로 결정.

5)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Ad Hoc Committee를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6) 내년도 회장단에서 Ad Hoc Committee를 구성하고, 비용과 방법 등은 Ad Hoc Committee에서 결정하기로 함.

Adjourned at 5:30pm

총무 오동환 (71 미시간) 보고

# 시계탑 창간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자문위원 盧 鐘 冕(55, 대뉴욕)

시계탑이 잘 자라서 벌써 35세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글솜씨를 가진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동창회보를 잘 키워 주셨습니다. 모교의 시계탑 밑에서 같이 성장한 우리들이, 외국땅에서 출판되는 동창회보 시계탑을 아끼고 도와주는 사랑의 표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여러 한국인 단체들이 신문을 출판하고 있는데 우리 시계탑에서 느끼는 글맛을 이들 속에서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글은 독자들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독자들이 좋아 하지 않으면 그 글은 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글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속 독자를 끌고 다니면서 글 전체를 맛보게 합니다. 나는 시계탑에 실린 글들을 꼬박꼬박 다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필자와 같이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우리 동문들이 보내온 주옥과 같은 글들은 과연 특수합니다. 후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시계탑이 계속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기회에 시계탑 편집을 위해 수고하시는 편집위원 여러분들과 부인들 그리고 멋진 인쇄를 위해 노력하는 황창근 사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시계탑 역대 편집장들

- 노용면(55) 1974-1979
- 김승업(60) 1979-1980
- 이희경(61) 1980-1982
- 송관호(64) 1982-1985
- 허선행(64) 1985-1988
- 유진일(67) 1988-1989
- 임안무(69) 1989-1994
- 서인석(73) 1994-1997
- 노재홍(71) 1997-1999
- 서 랴(69) 1999-2003
- 김병석(59) 2003- 현재



지난 3월에 있는 출판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 시계탑 문집 제4집 발간



시계탑 발간 3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년간 시계탑에 게재되었던 동문들의 글을 모아 '시계탑 문집' 제 4집(294면)이 발간됐다.

2004년 발간된 3집에 이어 수필 43편을 [삶과 추억]이라는 중간 제목에 엮었고, 시 12편을 [떠오르는 사상편]에 묶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기행소감을 나누어준 글들을 [우정과 넓은 세상에] 넣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발간된 시계탑 문집에 게재된 작품들은 모두 훌륭했지만 이번 4집 역시 여러 동기들을 직접 만난 것 같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글들이 있어서 감동이었다. 특히 시 12편 중에 보이는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효심에 대해 쓴 허서룡 동문의 시와 43편의 수필들을 동문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다. 특히 여행 후에 기행 소감과 더불어 동문들의 즐거운 행방을 나누어준

37대 회장 윤효운(69)

[우정과 넓은 세상]은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 했다. 모두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동문지가 있어 큰 즐거움과 넓은 세상을 함께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표지는 년전에 미술대가 김석식(62)동문께서 그려주셨던 우아한 난초꽃을 사용했다. 제호는 정균희(72) 동문께서 써주신 것을 사용했다. 새삼 감사드린다.

그동안 글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년후 발간될 제5집도 동문들의 주옥같은 글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문집은 7월호 시계탑과 함께 우송될 예정이며 문집 발간을 위해 200달러씩(\*는 300달러) 현금한 동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문집을 받으신 동문들의 성원도 기대해 본다.

- 나수섭(50) 김정준(52) 강수상(53) 김갑균(54) 노용면(55) 김웅식(55)
- 임영신(58) 신상균(58) 이만택(58) 김시한(58) \*이운순(58) 김병석(59)
- 임낙중(59) 신영철(59) 김재정(60) 강창욱(61) 이희경(61) 오태요(62)
- 정 태(62) 정정수(62) 왕규현(63) 김택수(63) 권영조(63) 허선행(64)
- 이유찬(64) 정유석(64) 이홍표(64) 오태희(64) 황규정(65) \*이한중(65)
- 허서룡(66) 황 철(66) 이건일(68) 서운석(68) 김중권(69) \*서 랴(69)
- 김창남(69) 방준재(70) 조세진(71) 홍성진(71) 김창구(71) 홍 건(71)
- 이원택(71) 나두섭(73)

## 제26차 연례 학술대회를 마치면서

이번 컨벤션을 성황스런 행사로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세상을 초월해 120여명의 동문들이 부부 동반하셔서 첫날 Class Reunion에 참석해 주셨고, 또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Banquet Hall과 Scientific session plaza hall도 꽉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의 끈질긴 노력 외에도, 여러 선후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네이슨이 있었기에 이번 컨벤션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를 해주시며 잘 이끌어오신 총무 오동환(71)동문, 세계수준적인 연사들과 흥미로운 topic 들을 골라 선택하면서 흥미진진한 Scientific session을 이끌어낸 scientific chair 장현식(70)동문, evening program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민우(67)동문, 양찬기(63)동문들의 재치 있는 사회습씨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golf program과 entertainment program을 도와주신 두 부회장 문광재(68)동문, 김유식(71)동문, 또 아주 골치 아픈 골프 프로그램의 총책임을 맡아 수고를 해주신 김희주(68)동문, 한경석(70)동문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team work를 만들어 모든 일들을 harmony를 이루며 처리한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동문서주하시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주신 조의열(66)동문의, 우리 동창회에 대한 공헌은 많은 역대회장들도 다 감지하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를 맡아 알뜰살뜰 우리의 살림살이를 김혜경 사무장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신 장연웅(78)동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12학점의 CME I credit를 arrange해주신 Crittenton Hospital의 CME committee chair Dr. Allen Silbergleit와 Ms. Paula Grube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컨벤션이 꼭 성공하도록 책임지고 일 해주겠다고 말하며 약속을 해주신 Ritz-Carlton Hotel의 이벤트 매니저 팀의 Mr. Richard Felton과 Ms. Tina Digillio의 도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이 컨벤션을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관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장단을 대표하여 모든 동문 가족의 평안을 빕니다.

# ANNOUNCEMEN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s seeking applications for the 2008 SNUCAA Research Grant from its members.

The applicant must be in good standing of SNUCAA of North America

The past participants of the Grant are also eligible.

The proposed research project can be in the area of either clinical or basic science.

The proposal should focus on a topic of importance and of benefit Korea and th United States, and preferably involve collaboration between SNUCAA of North America and Korea.

The project must have scientific merit, and the proposal must include objectives, methodology, the site of the study, the name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collaborators if applicable,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budget.

The recipient must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t the following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The amount of the Grant is ; \$3,000 from the SNUCAA of North America Won 10,000,000 from SNUCAA of Korea.

The dead line for the application is August 31, 2009

Please send the original and four copies of the proposal and CVs of investigator(s) to

Chair,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NUCAA OF North America  
Young Zin Sohn, MD  
yzsohn@gmail.com

## 2009-2010 회장단, 이사명단

###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이성춘(70)	President Elet	정인용(71)
1st VicePresident	이희영(71)	2ndVice President	임준형(73)
Secretary	최광희(76)	Assistant Secretary	조형기(92)
Treasurer	박일우(77)		

### Committee Chairmen

Finance	이홍표(64)	Scholarship	여천기(62)
Fund Raising	김일영(71)	Scholarship Fund	이명희(66)
Research &	손영진(62)	Green Project	백시환(99)
Publication	김병석(59)	ByLaws	노용면(55)
Advisory & Ex.	권영조(63)	Nominating	윤효운(69)
Office Management	곽승용(71)	Silver Project	조명호(62)
Convention Chair	이석규(70)	Scientific Chair	정균희(72)
Golf Chair	원정범(92)	Non-CME	차민영(82)

### Board of Directors 2007-2010

이운순(58) 김은섭(59) 이재승(61) 이상무(62) 한기현(63) 한태진(64)  
이유찬(64) 이한중(65) 오용호(72) 김동훈(77)

### Board of Directors 2008-2011

손영진(62) 조명호(62) 김태웅(63) 조의열(66) 이태석(67) 이현령(68)  
이성춘(70) 강태수(71) 김일영(71) 최광희(76)

### Board of Directors 2009-2012

채규철(59) 김택수(63) 추재욱(63) 조동준(64)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한영수(67) 오동환(71) 장연웅(78)

## Green Project Corner

만 9년간 자의반, 타의반 장기집권(?)을 해왔던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를 물려주는 마지막 회의에 모교 4학년 6명이 함께 자리를 해주었다.

젊음이 뿜어나오는 그들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그들의 명쾌한 자기 소개와 장래 계획을 듣고 있노라니, 지난 9년간의 노력이 마냥 헛된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꼈다. 좌절감에 몇번씩이나 사의를 표했던 괴로움이 말끔히 씻겨 나갔고, 노력화된 동창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 봄직도 하다.

7월부터 chair를 인계받는 L.A.의 백시환(99, neurology)후배의 젊음과 열정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지난 몇년간 활성화 되고있는 silver project, 이제 막 꽃봉우리가 피어오를듯한 green project 등 동창회 장기사업에 회장단 및 모든 회원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대뉴욕지부 서인석(73)



### 2009년 Summer Elective 명단

Columbia, NY: 이주영(Radiology), 최원욱(Rheumatology), 최원석(Glaucoma), 최선아(Clinical Genetics)

Yale, CT: 박재영(Rheumatology)

Downstate, NY: 오우진(Pediatric)

Temple, PA: 박송연(임상진료), 최유진(Emergency Medicine), 이현승, 박지홍

Minnesota MS, MN: 김진용, 오규수

Brigham & Women's, MA: 최홍윤(Psychiatry)

##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병원 선택 실습

이 가 연 (본과 4년)

막연하게나마 외국에서 의사 트레이닝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유로 미국 병원으로의 선택 실습을 결정하게 되었다. 나에게 기회를 준 곳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의대 병원의 외상 외과와 감염 내과였다.

나보다 앞서 그곳 병원에서 선택 실습을 하고 온 친구들 얘기와 달리 외상 외과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일정이 저녁 6시까지 계속되었다. 병원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차트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아직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이 갖춰지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은 공식적 의무 기록 작성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틀리지 않으려고 연습장에 먼저 기록한 후에야 그 내용을 차트에 기록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의무 기록 작성 시간이 점점 짧아지며 내 경험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학생의 기록을 검토한 레지던트는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거나 정정한 뒤 'co-sign'을 하게 되어 있어 내 기록이 그대로 환자 진료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몇 년 후라면 이것이 새로운 것 없는 일상과 업무가 되겠지만, 아직 아마추어인 의대생으로서로는 사뭇 감격적인 일기까지 했다.

가장 먼저 겪게 된 차이점은 이곳 의대생들의 자신감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육 환경이었다. 이제 막 병원 실습을 시작한 3학년 학생들은 마치 여러 번 경험을 해본 것처럼 능숙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문진을 하고 신체 검진을 시행했다. 환자의 병실에

들어서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으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환자는 이들이 학생이라는 걸 알았고 이들의 배움에 관한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학생 의사임을 꼭 밝히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병원 현실을 고려해 환자를 보러 갈 때는 의사인 것처럼 하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으니,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학생임을 밝히기 전과 후 환자의 태도 차이를 보고 당황한 경험도 있으니 양국 간 의학 교육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감염 내과 실습에서 학생의 업무는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의료 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주로 심장 내과, 그 중에서도 중환자실에 있는 심장 내과 환자들이 주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자문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 펠로우가 학생에게 간단한 환자의 정보를 주며 환자를 맡긴다. 그러면 학생은 기존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환자를 찾아가 직접 문진과 신체 검진을 실시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의무 기록을 작성한다. 오후에는 담당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감염 내과 레지던트들과 학생들이 함께 회진을 돈다. 이때 특정 환자를 맡은 학생은 사람들 앞에서 그 환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나서는 환자를 찾아가 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이 또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

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 한 명 당 진료 환자 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실습을 돌 적에는 갑자기 교수님이 나타나시면 레지던트는 정신없이 그 뒤를 쫓고 학생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 환자가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선생님들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끝나는 것이 '회진 실습'의 모습이었다. 때때로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시간에 쫓긴 회진을 하고 가시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감염 내과에서 했던 공식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기존 논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나가는 방식의 과제였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Diagnosis of Tuberculosis: Time to retire Tuberculin Skin Test (TST)?' 였고 참고 논문은 'An Update on the Diagnosis of Tuberculosis Infection'과 'Improved Diagnostic Evaluation of Suspected Tuberculosis'였다. 프레젠테이션 시간 자체는 한국에서와 달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교수님과 직접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한국에서 병원 실습을 하는 동안 환자 증례 보고 중심으로 발표를 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단순히 논문을 검색해서 그것을 요약,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그에 합당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준비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 교수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편의 논문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 논문들을 검색해가면서 발표의 윤곽을 잡아갔다. 이곳에 오기 전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TST)를 해야 했는데 어렸을 적 BCG 예방 접종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던 일이 생각났다. 결과는 장경 23 밀리미터로 검사하는 간호사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큰 경계라고 한 얘기를 발표 도중 TST의 높은 위양성을 언급 시 농담 삼아 하기도 했다. 뜻밖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여러 사람들이 멋진 발표였다고 칭찬해주었다.

올해 봄 학기 MEXIM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학교 선배들 중 필라델피아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거나 현재 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강현선\* 김정훈 선생님 부부, 채영광 선생님, 김종오 선생님, 그리고 황필규 선생님과 만남으로, 강연회 때 만난 강현석 선생님의 소개로 누님인 강현선 선생님께 보낸 메일을 통해서였다. 그분들이 그곳에 오기까지의 준비 과정, 그곳 생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졸업 후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병원 실습을 다녀온 후 미국으로 가 레지던트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깝고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2008년 초, 한 새터민(탈북자의 새 명칭) 대안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명숙 교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동포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말을 했다. 그 말씀을 듣자, 내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음을 자각했다. 더 나아가 내 미래를 북한 사람들을 위해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봐도 신기한 일이었다.

그 후 앞으로 의사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한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한 동아리에는 이미 '북녘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의료 연구 소모임을 하고 있어서 그 곳에 가입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 올해의 모임 계획을 논의했다. 일단 북한의 실정,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책 나눔을 하기로 했다.

새터민으로 불리는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현재는 보건소에서 진료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대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새터민 대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정기적인 활동이 아니어서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병원 선택 실습 기간을 통해 가정의학과에서 새터민들을 대상 집단으로 한 연구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 건강에 대한 자료가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이것 또한 할 수 없었다. 대신 북한에서 외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탈북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선생님을 만났다. 의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라틴어와 러시아어로 의학 용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 의학 용어와 약자를 특히 힘들어하셔서 선택 실습 기간 동안 남북한, 영어 의학 용어 정리를 함께 시작했다. 앞으로 다시 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미래의 새터민 출신 의사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일이었다.

졸업 후에는 레지던트 과정에 앞서 보건 관련 단체에 들어가 실제적 경험을 쌓아 보건 의료내에서의 필요를 파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Master of Public Health(MPH)를 하고 싶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Fellowship program을 시작할 수 있겠다. M.D., M.P.H. 자격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많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 또한 많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 보건 관점에서의 북한 의료 뿐 아니라 직접 북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임상 의사로서의 역할 또한 내게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경로로 북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단 북한에는 현재 병원 시설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질병들은 감염 질환, 특히 이에 선행되는 영양 부족, 실조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미래 사회에 대한 그 동안의 예측 노력이 부족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원하는 것만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멀지만은 않다는 것을 본다.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준비할 필요성은 충분히 크다. 북한 사람들을 향한 꿈을 원동력으로 이 일에 인생의 남은 시간을 던지는 것은 내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 훈련 과정을 거쳐 의사로서 일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겠지만, 이왕이면 활동 무대를 전세계로 넓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싶다. 미국 병원 실습 경험은 의대 졸업 이후 구체적인 진로 선택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회를 갖고 그 시

## 26회 총 미주동창회를 학술대회를 마치고 나서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미주 동창회가 연례 학술대회를 가진지 금년이 26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위스콘신에서 첫 번 모임을 가진 뒤 동부 중부 남부 서부를 거쳐서 금년에는 현 회장 윤효운(69) 동문의 지역인 미시간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미국경제의 상징 도시가 된 Detroit 근교 Dearborn에서 본회를 유치하기로 결정짓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지도 않은 이 지역 동문들이 결속하여 이 큰 잔치를 대과 없이 치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시간이 세 번씩이나 동창회를 주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흩어져 계신 선후배 동문들께서 오직 한 뜻, 모교가 배출한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후학을 끊임없이 배출할 모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의논하고자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바쁘신 일정을 마다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명예 동창회 회장 강신호(52), 동창회장 박용현(68), 의과대학 학장 임정기(75), 대한의학협회 회장 김성덕(72) 동문들이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전체 참가인원은 동창 116명을 포함해서 총 218명이었습니다.

이번 학회를 위해 수고한 임원진으로는 회장 윤효운(69), 제일부회장 문광재(68), 제이부회장 김유식(71), 총무 오동환(71), 재무 장연웅(78), 동창회 대회장 이민우(67), 준비위원장 이태석(67), 학술위원장 장현식(70), 골프위원회의 김희주(68), 한경석(70), 강태수(71), 문광재(68), Art Exhibition 조의열(66), 재정 오상현(71), fund raising 권영조(72), 여흥에 강태수(71), 김유식(71),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고 하여주신 Mrs. 문광재와 Mrs. 김유식 이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온갖 굵은일을 맡아 주신 부인들의 수고는 이번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를 지켜 주시며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으로 많은 조언을 하여주신 김혜경 사무장의 공로 또한 간과 할 수 없었습니다.

임원진들은 수시로 모여 일일이 점검하여 만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물론 회의 기간 동안 화씨 70도 전후의 화창한 날씨로 예약하여 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개막 첫날이 되어 대의원회에 이어 간단한 저녁이 갖는 Welcome reception에서 모여 자주 보지 못했던 동문들간에 정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오전 6시 40분부터는 학술 강연 및 기타 배우자를 위한 강의를 오전 11시까지 사흘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한국의 prenatal care에 관하여 황도영(83)동문부터 시작된 강의는 마지막 날 디트로이트 미주 동문 중 가장 젊은 김종재(86)동문의 Inflammation of human placenta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의 여러 동문들께서 "Stem cell research"에서 "Facial plastic surgery", "Cognition and Spirituality" 거쳐 "How to welcome our Death and Dying"에 이

르기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각 부문에 걸친 강의를 하여주시었습니다.

어느 하나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 보낼 수 없이 다 충실하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만 지면상 다 열거할 수 없음을 사과드립니다.

단지, 현 의과대학의 현황을 소개하여 주신 임정기 학장, 동문의 부인 이신 정영애(최공참61), 자제인 Christopher Kim(김유식 71), 자부이신 Clara Hwang(이상일 60) 또한 동문의 지우로서 Mexico 강의 방문길에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John Hopkins 피부과 과장이신 강세원 박사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연사 선정, 초록 수집, 연사 확인 등이 모든 학회준비를 하는데 장현식 학술위원장 수고가 많았음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7월 5일 6시 반부터 시작된 Scientific Session

매년CME credit을 얻기 위해서는 본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겨 주었는데 금년에는 윤효운 회장이 나가시는 Crittenton 병원에서 저희 동창회를 위해 기꺼이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윤희장에 대한 대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우자 및 관심 있는 동문을 위해서는 동시에 건강식품, 피부 관리 및 와인에 관한 개요 등 유익한 강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과 지역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후 행사가 강의 끝나면서 곧 이어졌습니다.

골프는 7월 5일에는 인근 Lakes of Taylor(public), 7월 6일에는 Dearborn Golf and Country Club (Private), 그리고 7월 7일에는 Western Golf and Country Club(private)에서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buffet lunch를 즐긴 후 골프는 shotgun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시 모든 참가 동문과 게스트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한 바 이 번호가 학술회기간 동안 참석자들의 고유 번호로 써져서 비슷한 한국이름으로 오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한 골프위원들이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Gross champion을 하신 분들은 7월 5일에 온기철(71)과 Mrs. 정인용(71), 7월 6일에 석창호(72)와 Mrs. 조철용(75), 7월 7일에는 이인수(66)와 Mrs. 이홍표(64) 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7월 5일에는 Detroit Institute of Art 로, 7월 6일에는 Henry Ford Greenfield Village(민속촌)를 버스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일은 문광재, 김유

식 두 부회장 부인들이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7월 5일의 Class reunion 밤은 이민우(67)동문의 사회로, 7월 6일의 Talent show와 7월 7일 이번 학회를 마무리하는 Grand Banquet은 양찬기(64)동문께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7월 5일 저녁에는 현 보스턴시 시장으로 출마한 Sam Yoon의 부모 피시는 윤원길(65)동문이 보여주신 아드님의 경력 및 정치적 소견을 제시한 비디오편을 시청하였습니다. Minority 출신으로 선거 기금모집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정이라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병원 LA office에 계시는 최희영 실장으로 부터 미주진료 협력 Network을 구축, 미주 한인들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학 병원 LA 분원에 관한 소개가 있

었습니다.

그 후 미시간 지역에서 고전무용을 가르치시는 최선미 여사께서 찬조출현으로 장구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용현(68) 모국동창회 회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개인 업무 속에서도 동창회의 일을 맡으신 박용현(68) 동창회장께서 앞으로의 동창회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동창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윤효운(69)회장과 오동환(71)총무에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여흥 순서로 들어가 간단한 수수께끼를 맞힌 세 명의 남녀 배우 임현재(65), 한국에서 오신 김유영(69)교수, 67년 이소희(67) 부인이 즉흥으로 소극을 꾸며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강신호(52), 김갑균(54) 선배동문께서는 바지에 풍선을 넣는 게임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참여하여 주셔서 분위기를 더욱 돋워 주셨습니다. 67년도 동기들은 "의가월령가"를 타향살이에 맞춘 랩(rap)으로 불러주었습니다.

7월 6일에는 한국 의학협회 회장 김성덕(71)교수의 한국 의료 현황에 대한 presentation이 있었습니다.

이어 명예회장이신 강신호(52) 선생님의 인생 회고담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간의 활동 및 "은퇴란 없다" 하시면서 아직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찬기(64) 동문의 재치있는 인터뷰를 섞은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인기 프로그램 장기대회로 이어지는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장기대회 대상 수상자로는 Puccini의 Turandot 아리아인 Nessun Dorma

를 불러주신 전희곤(60) 동문으로 연세를 부정하시듯 high "C" note를 hit 하셨습니다. 혹자는 Pavarotti 노래에 lip synch를 하시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만큼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춤, 만담, 가요에 훌륭한 솜씨를 보여 주셔서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71년, 78년도 동기분들의 합창 또한 즐거웠습니다.

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음악과가 있었는가 하는 우문에 단지淫樂科가 있었다는 현답이 있었습니다. 강태수(71) 동문 부부, 김재석(72) 동문 부부의 Ball room Dance 시범은 무용이 이렇다 함을 보여 준 것인데, 결코 주눅 들리지 않고 무대를 채운 다른 동문들은 용기가 지나친 것인지 흥이 지나친 것인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 70회 생일을 맞으신 임현재(65) 동문을 위한 동문과 부인들이 함께 축하하는 간단한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Finale가 되는 7월 7일 Grand Banquet는 다시 한 번 양찬기 동문의 능숙하신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동문 중에서 제일 젊은 백승원(79) 동문이 든 동창회기 입장, 김주평(68) 동문의 선창으로 교가제창, 친구 회장 인사, 전회장 및 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등 공식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이성춘(70)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내년 컨벤션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LA 근교의 Disneyland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동문의 참가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 수업 받고 한양대학에서 교직에 계시다가 오신 서영길(71) 동문의 부인께서 특송을 하여 주셔서 갈채를 받았습니.

그 후 자연 과학대학의 정명희(71) 동문은 지난번 Stem Cell 연구로 분란이 되었던 황우석 사건, 본 대학교 자체 조사위원장으로 조사 경위 및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 후 12시가 될 때까지 좋은 노래와 춤으로 동창회의 마지막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끝으로 이번학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문 개개인이 동창회를 위한다는 사명감 속에 한뜻으로 참여하여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 학회는 어디까지나 미시간 동문의 굵판도, 동창회 임원진들의 showcase도 아니고 자리를 함께 했거나 못하였거나 동창들의 한 마음을 모아보고 맞추어 분수 있는 성스러운 행사로 보겠습니다.

이번 컨벤션을 위해서 사상 제일 많은 모금(\$45,439)이 되게, 도네이손하신 동문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사진을 전시해 주시고, 판매 대금 전액을 동창회에 기부해 주실뿐 아니라, 동창회 전 기간 동안 사진을 찍어 주신 조의열(66)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순조로이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 까지 뒤에서 일을 맡아주신 회장님이하 임원들 어부인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연례 학술 대회장 이민우(67)

# 청춘을 돌려다오

## -미주총창회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김창구(71, 미시간)

이번 총 동창회의 장기대회에서 한 선배분이 '청춘을 돌려다오' 라는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주셨다. 40년쯤 전에 막걸리 집에서 젓가락을 두드리며 목청을 돋우었던 추억이 되 살아났다. 그 때야 청춘이었으니 가사가 실감 나거나 마음에 오는 일은 없었겠지만, 뽕짝의 박자와 곡조가 흥겨워서였는지, 술자리에서 자주 쓰던 노래였던 것 같다. 동창회 파티 장을 둘러보니 이 노래가 주위 분위기에 딱 맞는구나 싶었다. 마음이야 다 내 마음처럼 청춘이시겠지만,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옛 시조의 말씀과 같이, 동문들의 앓은 모습이나 희끗한 머리카락이 노래의 분위기에 제격인 듯싶었다.

세월에 따라 미주 동창회도 연륜을 쌓아가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의 보충이 부족한 탓으로 노쇠해 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도 6학년엔 진급한 71년 우리 동기들이 총 동창회에서는 젊은 청춘 세대라고 느껴져서 즐거웠던 것이 나만의 환상인지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도 한다.

35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난다. 아직도 27세의 풋풋한 젊은이였을 때였으니, 클리블랜드에서는 40대의 선배님들이 최고령(?)의 선배님들이었고, 그 분들이 그렇게나 어른스러워 보였고 나이 들어 보였던 때였다.

총 동창회가 시작한 무렵인 70년대에, 40대의 선배 동문들이 회장직을 맡았었다. 80년대 초에 고광욱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졸업생 3천 명 중에, 천 명은 한국에, 천 명은 미국에, 천 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돌아 가셨다고 말씀 하셨다.

이번 동창회에 참석하신 임정기 회장님의 말씀으로는, 7천 명인지 8천 명인지는 한국에, 천 여 명은 미국에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세월의 흐름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인생의 한 세대는 3개 성상 즉 30년이다. 세대차라고 하면 대개 30년 차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대부분이 오래 살아야 90년, 3세대를 살고 떠난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고 떠난다는 말인데 더 오래 살면 증손자 증손녀를 볼 수도 있다. 그 동안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백년을 넘어서서 이민 4세대가 태어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을 오면 일찍 오던 늦게 오던 누구나 이민 1세이며 아들 딸 세대는 이민 2세, 손자 손녀의 세대는 이민 3세이다.

한인 이민사회가 팽창하면서 일점오세(1.5) 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 하던 말이지만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한국사회는 물론 미주한인 이민사회도 인터넷이 새로운 유행어를 쏟아 내고 있다.

일점오세(대)를 나름대로 한 번 알아 보자.

첫째, 한국에서 태어나 유아기에 부모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2세.

둘째, 유아기를 지나 말을 배우고 초등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이민 올 때 6-12살이던 한인 2세.

셋째, 중고등 학교 재학중 또는 학

미주 동창회가 여러모로 노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미국 내의 2세 참여도 좋지 않음, 한국의 후배들이 좀 더 쉽게 이곳으로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 본다. 10년, 20년 후의 동창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이번 총 동창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즐거웠다.

디트로이트 동창회 임원진의 많은 71년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짜임새 있는 계획과 알찬 프로그램, 그리고 Midwest 특유의, 손님을 응송히 대접하는 친절함이 어우러져 모든 행사가 성공적이고 즐거웠던 탓도 있었겠지



만, 나는 특히, 첫 날 동창회장 모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행복 했었다. 별로 특별히 큰 이유는 없고, 그 많은 선배님들과 얼마 안 되는 후배들의 ratio가 너무나 커서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젊다고(어리다고) 착각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아래 학년인 72년 동문들 말고는 제일 젊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어린 후배인 78년, 79년, 또 그 아래 후배들은 아예 조카뻘로 밖에 안 보여서 치지도의해도 될 것 같았다. 집안의 막내는 만년 어리다더니 맞는 말인 것 같다. 게다가 아내의 친척(부모님의 사촌 동생들) 아저씨뻘 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 중에 두 분이나 계시다 보니, 선배님의 젊은 사모님께 '아주머니' 하고 소리치며 인사한다. 겉으

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이민 온 13-17살이던 한인 2세,

이상 세가지를 통틀어 일점오세라고 부르는 듯 한데 한인 2세 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원정 출산으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한인 2세가 있다. 한국에 영주하는 부모가 미국 이민을 쉽게 오기 위한

전주곡으로 미국영토로 관광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 때맞추어 출산하여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된 신생아의 경우인데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이민 2세는 틀림없으나 모르긴 해도 일점오세라고 부르지는 않은 것 같다. 원정출산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결혼한 부부의 한인 2세와 한인 부모 따라 캐나다나 남미 제 3국으로 먼저 이민을 갔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태생 한인 2세와는 어떻게 부르는지 의문이다.

다시말해 일점오세는 미국 태생이

로야 놀라시며 웃으시지만, 속으로는 꽤 씁하셨을 지도 모를 일이다. 나이든 조카를 두신 탓이니, 양해를 바랄 뿐이다.

5학년과 6학년의 차이는 완연하다. 싫다는 사양에도 불구하고, 멀리 사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동네 친구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내가 차려준 환갑상 덕에 등 떠밀려 6학년엔 진급을 하고 보니, 어디에를 가든지 노인 취급이다. 수명이 길지 않던 예전에는 인생의 한 사이클을 돌아와서 맞이하는 환갑이 의미 있는 큰 잔치였음을 이해는 하지만, 내가 맞고 보니 별로다. 몇 년 전에 받아두었던 AARP 카드에다 senior에게 주는 이런 저런 discount 카드들이 지갑에 쌓여간다. 전혀 6학년으로는 안 보인다고 말해주는 젊은이들이 뜻 없이 흘리는 입바른 소리에 속아보고 싶은 마음의 나와, 그래도 1, 2볼씩이라도 모이면 그게 어딘데 하는, 경계를 염려하는 내가, 카드를 쓸까 말까를 놓고 번번



히 망설인다. 그래도 선배님들이나 또래 분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 선배님들을 따라 슬며시 카드를 꺼내어 쓰게 되고, 또 아내와 둘이 나갈 때면, 꼭꼭 찌르는 아내 때문에 쓰는 횡수가 늘어 간다.

내가 자신의 나이를 잊고 아직도 여기 저기 나서다 보면, 아내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니예요" 란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면, 지갑을 여세요."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해요, 짧게 용건만 말하세요." "분기 전에는,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때를 알고 일어나세요." 등등, 훈계가 계속 된다.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입맛이 떨어롭다.

내 환갑 때에, "난 아직 5학년이야."

아닌 한인 2세의 신분을 세분하여 부르는 유행어 이다. 그러나 한인 2세의 신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이민 2세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민 2세가 이름이 알려지면 그 때부터 소수점을 쟁겨 이민 2세의 이력서에 1.5 세라는 꼬리표를 달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1.5세의 다음 세대는 2.5세가 아닌데...

합중국인 미국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피는 더욱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세기가 바뀌기 전에 백인이 오히려 소수 민족으로 뒤바뀐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연방 통계국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 현재 미국인구는 3억552만9천999명으로 집계되었다. (305,529,237명 Est.) 시간으로 계산하면 8초마다 1명 출생,

하며 까불던 아내도 이제 6학년으로 진급 하여 한 학년이 되었다.

이번 동창회에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재혼하신 선배님들, 동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재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한 걸 같이 모두 다 화색이 만만하고 기뻐 보인다는 것이다. 상처를 하셨던, 이혼을 하셨던, 모두 다 슬픔과 아픔을 지나왔겠지만, 모두들 활기 있고 행복해 보였다.

첫 번째 부인과 오랜 우정을 나누어온 First Wives Club Member 들은 착잡한 심정이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행복한 모습이란 보기 좋은 것이다.

나이 들어가며 느는 것은 남자를 막론하고, 고집이고, 변명이고, 무감각이며, 건망증뿐이다. 서로를 바라보면, 주름진 얼굴에 처음 만났던 시절의 젊음은 간 곳 없고 설레임도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사랑도 노력이고 공부이다. 옛사랑을 기억하고 복습하며, 나를 위해 헌신한 서로를 상기하며,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안으면, 사랑도 피어나고 설레임도 다시 온다. 서울의대 졸업생으로서 늙어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신조에는 변함이 없다.

선배님이 불러주신 "청춘을 돌려다오" 라는 노래처럼, 그 좋은 청춘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으려만, 어차피 청춘을 돌려받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첫 사랑을 아내로 맞은 나로서는, "꿈도 꾸자마" 하는 아내의 협박이 아니라도, 두 번째 부인을 맞는 일을 없기를 바란다. 나에게 와서 고생하고 청춘을 바친 지금의 아내와 언제나 신혼처럼, 언제나 애뜻하게, 사랑하며 평생을 살고 싶다. 청춘을 돌려 달라고, 구차하게 애걸하며, 구걸할 것 없이, 지금의 아내와 청춘처럼 살면 된다.

배성호 목사님(71)의 강의처럼, 사랑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면서 신나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 간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이다.

12초마다 1명 사망, 36초마다 1명 이민 - 결과적으로 미국인구는 13초마다 1명 증가로 시간마다 거의 300명 씩 불어나는 셈이다. 소수민족인 한국계 시민은 1백5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미국 인구의 0.5% 미만으로 미국인구 2천 명에 한 사람도 안 되는 셈이다. 그러나 비공식 알려진 인구 통계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다.

더구나 일점오세는 미국인구에 비교하면 아주 희귀한 한국계 2세 시민이다. 조국이 그리운 이민 1세가 떠나온 조국의 향수를 소수점에 메달려 찾아보려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2세가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면 너도 나도 자랑을 하기 마련인데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 그러나 한인 2세가 별로 달갑지 않은 일로 이민사회에 알려지는 경우에는 구태여 소수점을 챙기지 않는다. 따라서 1.5세대라고 부르면 한층 더 조국에 가까운 애국자로 느껴지는가 보다. 반대로 한인 2세라 부르면 조국을 등진 나그네의 신세가 되고 만다. 그렇다고 소수점이 등장하는 새로운 이민 세대를 따로 만들어 한국인 특유의 차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다.

# 소수점 세대

오태희(64, 케네디킷)

다시말해 일점오세는 미국 태생이

# 2009년도 제26차 하계 학술대회 화보



▲ 교가를 부르면서



강신호 명예회장  
사회로 수고하신  
양찬기 동문과  
임정기 학장(아래)



▼ 매일 다른 골프코스에서 라운딩



흥미있는 학술대회

가장 많이 참석한 60년도 동문들



신임동창회장님과 함께



최선미 선생의 고전무용



이민우(67)동문이 쓴 단막극 연출장면



이민우동문의 다른 걸작,바지속에 풍선불어넣기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제26차 학술대회 기념사진들이 미주동창회 Web Site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http://snucmaa.us/> 자유게시판에서 2009년 7월 16일자 Article# 2565으로 들어가셔서 즐겁게 감상하시기바랍니다.



교기를 인계하는 윤효운회장과  
신임회장 이성춘(70)동문



임원으로 바뀐 오동환 총무와  
골프 메달리스트 이인수 동문



윤효운회장과  
박용현 모국동창회장



전임 미주동창회장님들



▲ 교가를 부르면서

▼ 매일 다른 골프코스에서 라운딩



강신호 명예회장

사회로 수고하신  
양찬기 동문과  
임정기 학장(아래)



▼ 67년 동문들의 장기자랑



가장 많이 참석한 60년도 동문들



신임동창회장님과 함께



The New Rising Dance Star



최선미 선생의 고전무용



이민우(67)동문이 쓴 단막극 연출장면



이민우동문의 다른 걸작,바지속에 풍선불어넣기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제26차 학술대회 기념사진들이 미주동창회 Web Site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http://snucmaa.us/> 자유게시판에서 2009년 7월 16일자 Article# 2565으로 들어가셔서 즐겁게 감상하시기바랍니다.





# 인류의 문명 II

임 낙 중(59, 메릴랜드)

철따라 올해도 예쁜 단풍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사계절이 아름다움을 서로 다투고 자연의 얼굴치고 미상이 없지만 가을 단풍의미를 표현하기에 나는 너무나 둔하다. 나도 때가 되면 조용히 옷을 벗어야지 하는 順命의 마음이 있어 말없이 갈아입은 단풍이 형제처럼 느껴진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이나 경국지색의 미녀도 때가 되면 옷을 벗기는 때 일반이고 낙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장례 행렬의 길이와 호화로움이 다른 점이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섯 자 땅 밑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천국이 있고 없고는 어차피 죽어봐야 할 일이니 긴 얘기는 시간낭비일 것이고 확실한 것은 때가 되면 단풍처럼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뿐이다.

단풍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내게 설명하라고 하면 색채, 빛, 그리고 선 등의 조화에다가 보는 사람의 느낌에 의하여 미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상 설명은 내 능력 밖이다.

Arthur Schopenhauer(1788-1860)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미의 영원성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불교적인 해탈과 함께 미의 영원성을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방법으로 말한 것은 흥미롭다. 다시 주옥같이 아름다운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운명 얘기로 돌아간다. 살만큼 살아서 불완전 세상을 하직할 내가 앞으로 지구상에 닦쳐올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왜 걱정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일억 육천만 년간 지구위에 주인 노릇을 하던 dinosaurs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이성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구라는 배를 타고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육십칠억이라는 인류가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겠는가.

바로 수개월 전까지도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자부했고 두고두고 그 자리를 즐길 것으로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경제 위기에 몰리고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 전 세계가 둔 걱정에서 싸웠다.

지구 자체는 위기 전이나 후나 겉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 人爲의 탓으로 돈줄만 막혀도 전 인류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 더욱 인류의 장래를 걱정하게 된다. 이번 세계적 금융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자. 지불 능력이 없고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사람까지 subprime mortgage를 대부해준 은행과 모기지 회사 그리고 그런 대부를 받아 집을 산 사람들 그중에는 down pay도 없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장사를 해보려고 도박하듯 집을 산 수백만의 주택 구입자들이 위기의 첫째 원인이다. 그런 부실한 모기지를 가지고 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만들어 팔아 돈을 번 Fannie mae와 Freddie Mac, 그리고 수많은 은행들과 투자회사 등이 또한 경제 위기의 원인이다. 미국 국민이면 빈부 관계없이 누구나 집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정치적으로 부추기며 정책에 영향을 미친 국회의원 책임도 큰데 이전에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데도 이제 와서는 완전히 발뺌을 하고 있다.

Mortgage backed securities 거래에서 엄청난 보험료를 받아 쟁긴 거대한 이득은 이미 호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갔고 보험회사들은 수백억불의 bailout을 받았다. 보험 수수료로 몇몇 보험회사 간부들은 거부가 되었고 회사 빚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그런 양심이 어데 있는가.

누구의 책임이던 간에 탐욕이 근본 원인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집권당은 물러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탐욕에 눈이 먼 일부 월가의 경제인들의 실책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점이 들어났다. 이를 계기로 오바마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바꾸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수많은 정치사상 그리고 경제적 제도를 시도했으나 그 어떤 제도나 국가도 오래가지 못했고 그 예로 로마제국이 사 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왔다. 나의 짧은 생애에서도 일본 군국주의, 히틀러의 나치당, 스탈린 모택동의 공산주의 등등 수많은 주의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목격했다. 그들 사상에 열광적으로 뛰어들어 귀중한 목숨을 버린 수백 수천만의 어리석은 영영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영속하는 국가나 사상이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경제가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는 큰데 앞으로 미국의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제적 위기는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 등 많은 다른 요소들이 물려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1997년에 소모한 Fossil Fuel이 지구가 사백이십이 년간 자란 생물에서 나온 분량이라고 한다.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미 미국과 심각한 경제제동을 벌이고 있다. 제한된 Fossil Fuel이 머지않아 동이 날 것이고 동시에 오염은 악화될 것이다. 겉으로 아름답지만 한 지구는 속이 비고 굶아가고 있다. 지구가 굶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류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종교에 귀 의하여 세상사는 도외시하고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며 걱정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도피처럼 느낀다. 종말론 재림 그리고 천년통치설을 믿으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 될까. 그러나 후 천년설 선 천년설 무 천년설 등 설도 많고 예수 재림 때까지가 있을 곳에 관해서도 설이 많으니 어느 설을 믿어야 할지 분별이 어렵다. 회교의 천당 Jannah는 코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회교도들의 마음은 더 편한지 모르겠다. 대승불교중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불의 서원으로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 그

들의 마음은 편할까. 하나님의 예정 창조 그리고 섭리를 꼭 믿는다면 인류의 운명이 내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 의면할 수 있을까. 몇몇 알려진 철학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본다.

Spinoza(1632-1677)은 말했다. 신이 창조자라면 피창조자인 인간에 의하여 신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이 전지 전능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달리 말하면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다. 창조자가 있어야 피창조자가 있다는 논리는 창조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창조자의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 원인의 원인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신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일리가 있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 그의 설에는 인류의 갈 길에 관한 얘기가 없다.

St. Thomas Aquinas는 이런 말을 했다. 동물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존재의 계층에서 인간 보다 높은 界層의 존재의 본질, 즉 신의 본질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不可知論을 폈다. 불가지론을 믿는 사람이 많으며 공자(BC551-479)도 논어를 보면 未知生焉知死라고 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 라는 말로써 不可知論을 말한 것이다.

子不語怪力亂神 공자는 괴상한 힘이나 신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이니 기적이나 초월적인 일은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가지인 일들은 다 덮어두고 현실에서 윤택하게 사는 일만 논하지는 철저한 현실론적 가르침이다. 근세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인류가 끝없이 과학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인류가 무한한 과학 발전을 이루기 전에 실수로 혹은 불의의 재앙을 맞아 그 운명을 닫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자에 가깝다. 나는 어린 아이가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며 노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과학의 발전을 본다. 사고가 날 것 같은 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얘기가 나온 김에 계시에 관해서 몇 마디 해야겠다. 옛날에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모든 큰일을 처리했다. 현대에는 미국처럼 기독교도가 많은 나라에서도 계시를 받아 정치를 하는 지도자는 보기 드물다. 현대인의 의식 구조가 옛날과 달라져서 계시를 받지 못하거나 옛날 지도자들이 대중을 영도하는 수단으로 계시를 이용했던가, 혹은 원래 계시라는 것이 꿈처럼 마음의 장난이든가 이들 세 가지 중의 하나 일 것이다.

St. Thomas Aquinas는 신학이 계시에서 얻은 교리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는데 계시의 정의가 어떤데 간에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의 계시는 복음서로 끝났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를 믿고 안 믿고는 신앙의 문제이며 철학이나 과학의 문제는 아니다. 요약하면 인류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 신앙으로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見性成佛하여 스스로 열반에 이룬다고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아 그 날 개 밑에 편히 쉰다고 해서 지구의 생태계가 오염으로 썩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한 순간 들리는 곳이니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 자신이 지구를 파괴해 놓고 남을 탓하거나 초자연적 존재가 있어 구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 동유럽 여행기

정정수(62, 후로리다)

한기현(63) 실버 위원장님 수고로 동유럽 5개국 관광은 저에게는 환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한원봉(50) 김갑균(54) 선배님들과 강태수(71) 막내동창, 김영철 선배님이 모시고은 정지영 회장님 교회 동료 4분 등 모든 분들이 너무도 좋은 분들이고, 정지영 회장님, 김갑균 선배님, 윤효운 회장님(69), 민경환(62)동기의 생일축하 파티까지 관대한 선심 술사기 경쟁까지 있어 매일 11 박 12일이 파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외람 되게 마이크를 맡아 정조대 이야기 개똥철학으로 여러분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나 후회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다만 양해 관용을 바랍니다. 정지영 회장님의 교주 문운 농담에 너무 주책부리지 않았나 봅니다.

마지막 날 부다페스트 야경 크루즈는 말 그대로 환상 그대로고 제 말 못 믿겠으면 picasa 강태수 후배 야경 사진전에 초대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각종 고기 각종 채소 한 접시에 쌓아놓고 정 회장의 무한 주류 선심으로 지방 유명 포도주와 보드카 그 지방 유명 맥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손으로 고기 뜯으며 맛있게 먹은 기억은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세한 여행보고는 다른 분들이 잘 쓸 줄로 알고 저는 내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다뉴브 강의 새벽 속도 산책입니다. 저는 3년 전 은퇴하고 플로리다 말코 섬 해변콘도에 동지를 틀고 겨울을 지내는데 마취를 평생한 습관으로 아침잠이 없어 매일 해변산책 2시간 동안 ipod로 좋은 음악 듣고 속도산책이 저의 은퇴 건강유지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다행히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변 인공저층격 산책로를 깔아 놓은 아름다운 코스를 따라 요한 스트라우스 blue danube를 듣고 속도산책을 하니 옛날 부산고등학교 가교사 건물 안에 온갖 고전음악관을 틀어놓고 음악에 무뎠던 한인 촌놈 나에게 이 멜로디는 송어가 물결을 역류해서 뛰는 멜로디(trout), 이것은 아름다운 다뉴브 강의 푸른 물결의 멜로디 하면서 자상히 자기도 심취한 환호의 표정을 지으면서 가르치시든 '오오 낙동강'의 작곡가 윤이상 선생님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이 뒤에 유명한 작곡가로 성공해서 교수직으로 계시든 베를린 음악대학도 이번 독일 방문에서 보았고 그때 저하고 3년이나 같이 하숙하고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문리대독문학과를 졸업해서 베를린에 유학해서 공부하던 중 옛 은사와 더불어 그 유명한 동백림 사건에 휘말려 7년 옥살이로 고생하고 지금 한국에서 최고 독문학자 천병희 교수가 얽힌 사건이 조작이라는 현지가이드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작년 한국 방문 때 천교수와 두 번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일제 사건 이야기는 안하고 부자집 외아들로 태어나 세상모르든 자기를 인생 완성시켜 준 좋은 계기를 주었다고 승화시키고 '노인과 우정에 관하여' 등 몇 권의 자기 역사를 선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평생 인연이라고 했는데 모든 분들 건강지키시어 다시 몇 번 더 만나 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마칩니다.

나마스떼!

안내를 포함한 39명의 서울대 선배 동문들이 3월10일 델리 비행장에서 만났다. 여행사 사장 Joanne Han의 권유대로 서울에서 30여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는지 서울서부터는 8시간도 안되는 비교적 간단한 비행이었다. 인도라는 곳은 다섯 명의 장님이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분을 만져보고 다섯 가지의 다른 표현을 하듯이 어디에 어떻게 중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호텔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거리로 나가기 전 한국말을 유창히 하는 안내인 서사티아(Satya Prakash)박사의 경고는 힌두교의 전설에 의한 악이 많고 선이 승리한 큰 명절날이라 새 옷으로 단장들을 하고 얼굴에도 여러 가지 색을 칠하는데 아무에게나 칠하는 것이 풍습이며 오후 3시나 4시 경에는 끝날 것이라 했다. 인도에는 109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으며 85%이상이 힌두교인이고 신들 중 가장 높고 힘이 있는 시아(Shiva) 신은 어디를 갈 때면 소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소는 신성한 동물로 추앙을 받고 있고, 율회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가난하더라도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애서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므로 늘 그들의 행복 지수는 높고 별 불평과 불만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인도에는 29개의 주와 17개의 다른 언어가 있으며 각 주마다 독립성을 가졌지만 특히 놀라웠던 것은 주 안에 아직도 작은 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인도의 문맹률은 40%가 넘어 선거 때는 출마인 이름 옆에 기호 외에도 자전거나 코끼리 등의 다른 표시가 있어야 되며 20여년전 6억5천만의 인구가 지금은 13억이 넘으니 앞으로 인구가 배로 늘어 날 때는 어떻게 될런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개인 소득은 일년에 \$400미만으로 현대 자동차의 노동자가 한달에 \$4000을 받는다면 인도의 일꾼들은 \$40을 버는 현실이고, 정치는 썩어 부패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마음은 전연 없고,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며 그들의 전력을 기우린단다.

인도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발을 묶어 놓는 카스트제도, 브라만, 카트리시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의 철저한 4 계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상이 가장 말단 수드라 출신 여자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인도에서는 최고로 손꼽히는 서박사의 모교인 네루 대학 캠퍼스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입학율은 천대 일이고, 합격만 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려면 일억 오천만원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건만, 그들은 일전도 내지않고 공부를 하며 졸업 후에는 모두 외국으로 간다니 카스트제도 외에도 이 가난한 사회의 병폐를 이미 느낄 수 있었다.

한번에 일만 명이 기도할 수 있다는 자마마스지드 시크(Sikh)교 사원으로 갔다. 남자들은 터반을 하고 나뭇잎을 실천하는 종교로 물론 신발을 벗고 진한 주황색의 보자기로 머리를 가리고 들어갔는데 넓은 사원 안에는 여러명의 신도들과 두 개의 침대가 노란(금 베끼?) 캐누피로 드리워져 있었다. 정장을 한 남자 하나가 침대 앞에 앉아서 하얀 털로 만든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너댓명의 여자들이 아름다운 그들의 전통 옷 사

리를 입고 앉아서 큰 노래 소리로 찬팅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여자들은 사리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성서를 모시는 침대였고 밤이 되면 구석에 있는 침대로 조용히 쉬도록 옮겨 놓는다고 했다. 성전을 나오자 커다란 밥솥에서 (쌀을 굵게 타겐 것 같은) 작은 주먹밥 하나씩을 받아먹는데 나도 어떤 분이 가져 온 밥을 조금 떼어서 먹었

인 가장 높다. 히말라야 산의 일출을 보기위하여 나가르콧으로 버스는 열심히 달렸다. 한 시간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자 수 없이 많은 화분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산장과 같은 호텔이 있었는데 호텔 뒷 마당에는 일출을 볼 수있는 돌과 벽돌로 잘 만들어진 커다란 테크가 있었다. 나무들과 짙은 안개에 싸여 해는 볼 것 같지 않더니 조금 후에 해는 뽕얇게

왔다. 무질서한 것 같았지만 무질서 중에도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 복잡하고 먼지와 연기투성이에 마스크를 해야 했고 밤에 버스가 갠지스강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설에 의하면 위대한 시바신의 이마에서 생겨났다는 갠지스강은 몹시도 크고 넓었다. 강변에는 큰 콘크리트로 만든 무대가 넓은 층계들 양쪽으로 있었고, 양쪽 무대에는 7명씩의 스님들이 커다란 여러개의 스피커로 찬팅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머리 위로는 큰 우산 모양의 가지각색 색깔들의 전등과 수 백 촛불의 환한 전등불이 대낮처럼 비추어 주었고 층계와 주변에는 수백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있었다. 층계에서 내려 온 우리들은 강가를 따라 한참 올라가서 보트를 타고 강으로 들어가 다른 보트들 사이에 끼어 의식을 참관 할수 있었다. 여러번 테로리스트들이 폭탄을 터트렸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했다. 평생 잊을수 없는 장엄한 의식이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갠지스강의 일출을 보기위해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제 저녁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다시 강변으로 향했다.

몇몇 사람의 직업 빨래꾼들이 자기 가 맡아 둔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아무나 들어가 빨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거기서 좀 더 높은 곳으로는 드문드문 수드라들만이 소유하는 화장대가 보였고 어떤 곳에서는 화장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체는 너댓 시간이면 다 타는데 그 재는 지름 일미터 정도의 양철그릇에 삼분의 이 정도로 차고, 새까만 재는 신성한 갠지스 강으로 버려지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천년황나무를 쓰고 보통 사람들은 맹고나무를 쓴다고 했다. 1, 2미터 정도의 장작을 열깃살길 쌓은 뒤 시체를 놓고 또 다시 그 정도 높이로 장작을 쌓는데, 반듯이 아들(남자들)이 불을 부쳐야 하고 여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으며 7-8명의 연고자들이 시체 주위에 있건만 이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것인지 우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율회설을 진심으로 믿어서 일까? 의식을 마치고 나면 너 나 없이 강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신다는데 물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병에 저장해도 이끼 같은 것이 끼지 않고서 박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기에 왔다가 그 물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몹시 노여워한다. 물을 마신 후 배 아프고 설사하는 적도 없고 빨래꾼들이 하루 종일 물속에서 일을 해도 다리가 부르트지는 일이 없단다. 그야말로 성스러운 신비의 물 같은데 보트에서 잠깐 손가락을 넣어 보았으나 더운곳이라 미지근했고 내 눈에는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감탕물일 뿐이고 마셔 볼 맘은 없었다.

거기서부터 미로도시의 경협도 가질 수 있었는데 길은 좁고 꼬불꼬불했으며 쇄똥, 개똥들이 즐비하고 각 집에서 만들어 놓은 작은 신들이 여러가지 색깔로 단장된 채로 있었는데 어떤 신에게는 여러가지 음식이 제공되어 있었다. 어디를 가나 사람투성이 될 수도 없는 입자 없는 소와 개들 그리고 쇄똥을 모아서 손으로 주물러 동글게 만들어 말린 후 아침 저녁으로 연료로 쓰는데, 그 동안 맑은 하늘을 볼수 없어서 안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것이 실은 요리할 때 나온 쇄똥의 연기였다.

어떤 그룹은 버스로 14시간동안 고생을 하면서 <다음면에 계속>

## 나의 인도 여행기

김명자(오대요 62 동문부인)



다. 우리의 밥 같았지만 약간 단 맛이 있었다.

그 후 파란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는 공원 같은 곳으로 갔는데 인도의 무저항 독립 투쟁가, 인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인권옹호주의자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를 화장했던 곳으로 힌두교에서 화장을 하려면 첫째 조건이 물 가까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시 버스는 우리를 인도문예 내려 주었고 그 곳은 영국인이 만든 인도인을 위한 위령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석양을 즐기고 있었다. 거의 250년이나 영국의 식민지로 착취를 당했으나 영국인에 대한 쓰라린 감정은 없고 그들이 두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4000개가 넘는 작은 나라들을 통일시켰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인도에 가는데 4000개의 비자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가지는 그 큰 나라에 철도를 놓아서 나라들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델리에는 붉은 벽돌의 낮고 긴 건물들이 즐비했는데 모두 정부기관들이었고 우리들은 버스 차창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그쳤다. 델리에서 네팔의 카트만두는 두 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지만 점심을 먹을 시간과 장소가 마땅치 않아 기내에서 두 개의 삶은 계란과 장아찌를 꼭 박아서 만든 주먹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준 안내원에게 감사를 드렸다.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도착했기 때문에 한없이 긴 줄을 서서 자기들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수속이 끝나자 김대성이란 젊은 가이드가 나타났는데 우리 말을 제법 잘 했다.

라마교는 힌두교와 불교가 합쳐진 것으로 소염부나트 사원은 하얀 둥근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꼭대기는 피뢰침 같은 것이 있으며 큰 두 눈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고, 질문표(?)처럼 생긴 코는 일(1)로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란다. 탑 꼭대기로부터는 긴 줄에 여러가지 색깔의 깃발들이 춤추며 달려 있고 그 깃발들에는 불경에서 따온 좋은 문구들로 꼭 차여 있었으며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사원 밖에는 여러개의 구리종들이 있어서 나도 하나씩 팽이처럼 빙빙 돌리면서 소원 성취를 빌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원숭이와 아픈 개들이 있었고 절대로 원숭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서박사의 주의가 있었다.

네팔의 고유 음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갈때 문간에서는 우리들을 환영하느라고 빨간 점을 두 눈 사이의 이마에 찍어 주었다. 저녁 식사 후 이층 큰 다락방으로 올라가 방석을 깔고 벽쪽으로 기대어 앉아서 그들의 여러가지 의상과 노래에 마추어 보여주는 민속춤을 흥미있게 보았다.

다음날 새벽 5시에는 세계의 지붕격

붉으스레 보여 사진들을 찍느라고 한참 야단들을 쳤는데, 나중 서박사의 말에 의하면 진짜가 아닌 Illusion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구름 중간에서 해가 떠오를리가 없고 해는 이미 오래 전에 떠 올랐을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사진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마음먹었다.

카트만두 역시 많은 인구, 쓰레기, 쇄똥들과 거기서 나오는 탁한 아침짙는 연기로 더러웠고, 땅은 좁고 산업이 없어서 인도나 한국 등으로 가서 돈 벌어 보내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 가난할 수 밖에 없었다. 생각외로 히말라야의 높은 산맥이 북쪽의 찬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온화하다고 했다.

최대 불탑의 보드나드 불교 사원을 보았고, 파탄(Patan) 광장에는 몇 마리의 소들이 주어진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수 천마리의 비둘기를 위한 곡식들도 있었다. 그후 처녀신을 모시는 나무로 만든 오래된 쿠마리 사원을 둘러보았다.



카트만두 비행장에서 바라나시로 가기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리는 동안 가져온 캔디와 크래커 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먹을 것을 잘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왜 늦는지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고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우리들은 바라나시로 갔다.

갠지스강의 힌두교 일몰 의식을 보기위해 리샤크 타고 거의 30분 걸려 강가에 도달했다. 26대의 리샤크는 자전거 뒤에 달려 있었는데 우리는 남녀 두명씩 앉아 있었지만 원주민들은 짐들고 4, 5명까지 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줄로 질서 정연히 갈 것 같았으나 얼마후 뱅뱅 거리는 모터사이클, 다른 리샤크들, 걸어가는 통행인들, 심심치 않게 유유히 걸어가는 소들, 가끔 낙타도 보이고, 8명이 끼어 타는 인도의 세 발 달린 조그마한 택시들이 신호등도 없는 거리를 앞서거나 뒤 서거나 달려가는데 서로가 거의 부딪칠 것 같으면서도 용하게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갔고, 설사 정면 충돌을 하더라도 고함을 지르거나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옆으로 비켜가는 이들의 성격은 정말 어떤 신 인것 같기도 했다. 리샤크를 탄 나 역시 백퍼센트 리샤크를 끌고 가는 뻘뻘마른 작은 몸집의 젊은이를 믿었고 어디에 충돌하리라고는 의심조차 해보지 않

# 색즉시공 空則視色



이원택(71, 남가주)

나는 서울의대를 나온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살고 있다. 누구 말마따나 서울의대 출신들은 "cream of the pie"라고 우리 동문들 중에는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지난번에는 임낙중 선배께서 色卽是空이란 문구에 대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나도 이 말이 "여색은 모두 허무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임 선배에 의하면 색의 어원은 빛으로서,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망막세포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니 우주 만물의 형태와 현상을 색이라고 한다. 반면에 空이란 말은 원래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는 비었다에서부터 경계가 없이 넓고 넓은 공간이나 세상만사 허무하다는 철학적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한다.

물론 각자의 주관이나 경험 또는 희망사항에 의해서 색즉시공이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이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혹자는 수만금이 있어도 죽으면 그만이고 영예와 권력도 부질없으며 아름다운 육체도 타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되고 모든 예의와 형식도 허례허식에 불과하여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었음을 알고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며 색을 잘 쓰는 여자는 구멍이 큰 법이니 세상만사 모두가 허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색즉시공이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쳐주셨던 김택수 선배님은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은퇴생활을 즐기고 계신데 그분의 사진촬영은 취미단계를 지나 예술의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철학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에 내가 사진작품을 몇 점 얻으려고 댁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 최신 컴퓨터 스크린으로 풍경화를 감상하던 중 "선생님, 여기에는 구름이 좀 있었으면 더 운치가 있을 뻔 했네요" 했더니 "어디 한 번 구름이 나오나 보자"고 하시더니 컴퓨터의 명암을 조정해 보니까 전까지 없던 구름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도 신기해서 여기 해가 뜨는 사진은 헬로우가 조금 더 있었으면 했더니 컴퓨터의 색상을 조절하는데 아까는 희미하던 헬로우가 선명히 나타나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구름이나 헬로우를 어디 다는 곳에서 갖다 넣은 줄 알았는데, 선배님 말에 의하면 그 구름과 헬로우가 원래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expose(출현)가 되느냐 아니냐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예를 들면 뱀은 눈이 어두워져 옆에 무엇이 있는가는 온도로 구별하고 박쥐는 귀가 밝아서 우리가 못 듣는 초음파도 들을 수 있고 사람 중에서도 색맹은 색깔이 있지만 보지를 못한다.

이와 같이 공즉시색이란 "눈을 감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처럼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허공에도 특수 안경을 끼고 보면 수많은 입자들이 보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는 하찮은 조그만 물체이지만 만약에 virus의 눈으로 보면 커다란 돌맹이들이 동동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즉 세상에는 완전한 無란 존재할 수 없으며 빈 것도 자세히 보면 무언가로 가득 차 있고 한가할수록 바빠지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제일 욕심쟁이인데다가 여자가 골이 비었으면 밑에는 물이 많이 차는 법이니 세상

만사가 다 어떤 눈으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색즉시공이란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으로, 공즉시색은 정신적인 것에서 다시 물질적인 것으로 전자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며 후자는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색즉시공은 유에서 무로, 공즉시색은 무에서 유로 돌아간다면 색즉시공은 허무주의에 가깝고 공즉시색은 실존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색즉시공은 부정적이고 공즉시색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불교에서는 眞空妙有(진짜 빈 곳에는 신기한 것이 존재한다), 無爲常在(하는 일은 없지만 항상 살고 있음) 등으로 색즉시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과이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色卽是空의 대우는 역시 空則視色이어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어린 양 떼들은 순진하기 그지없으며 용서하

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하면 모든 사악한 자들은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노름을 하면 돈을 따게 되어 있고 마음을 비워야 골프도 잘 맞으며 마음을 비우면 빛(진리)이 보이니 마음을 비우고 한번 연애를 해 보자. 얼굴이 못났으면 오목조목한 데가 있을 것이고 몸매가 뚱뚱하면 토실토실할 것이고 성깔이 사나우면 화끈한 법이며, 수줍은 여인 중에 은근짜가 많다. 즉, 색則是空이란 말이 모든 여색은 허무하다라면, 空 즉是色이란 말은 "못난 여자일수록 색을 잘 쓴다."로 풀이해야 될 것이다. 어디선가 우리 동문들의 "이런 개망나니가 다 있나" "나는 서울 의대를 나온 것을 큰 수척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 같다.

##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내용:

-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가급적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전면에서 계속> 왔다지만, 우리는 45분간의 짧은 국내선으로 카주라호에 도착했다. 그야말로 작은 도시여서 호텔도 겸소하고 저녁 식사도 간단했지만 안내들이 끌고 온 밥솥의 우리 밥과 김치찌개는 별 맛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들 먹었다.

유네스코 문화 관광지로 정해져 있는 동군과 서군의 사원군들은 크고 다채롭고 기묘했는데 수 천 수 만개의 성교하는 방법들이 노골적으로 누런 탑에 조각되어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84개의 방법이 아니라 그 것의 백 배는 되는것 같은 느낌이었으니, 나 개인으로는 18살 이하의 미성년자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미국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다루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9-11세기 찬델라왕조는 많은 아이들을 낳아 왕성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85개의 이런 사원들을 지었고 지금은 25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왕들의 사원인 처프리아 방문후 특급 기차로 무굴의 도시 아그라로 갔는데 단체의 집이 많아서 선반은 꽉 차여져 있었고 객실 입구에도 빈틈없이 여러개가 쌓여 있었다. 기차가 몇자마자 장정 너댓명이 짐을 빨리 끌어내려야 했기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잘 대기가 되어있었다.

드디어 3월 17일 화요일 이번 여행의 촛점인 사랑의 기념비로 세운 타지마할을 보려고 5시에 일어나 6시에 이미 도착을 했으니 더위와 많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다

운 흰 대리석의 무덤이었다. 동군 지붕 옆에 있는 네 개의 미나렛은 직선이 아니고 약간 기우러진 듯 했는데, 그것은 피사의 탑처럼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많은 지진에 대비한 것으로(그동안 19개의 큰 지진이 있었다.) 인도의 발달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60년 전 무굴 제국의 5대왕 시자히프왕의 왕비가 열네번째 애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2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막대한 돈을 드려 22년에 걸쳐 지은 무덤이었고 모든 것이 완전한 대칭이었으나, 왕이 죽은 후 중앙에 누운 왕비의 관 옆에 놓으므로써 대칭이 깨어졌다고 한다. 왕이 너무 많은 돈을 써서 국고가 동이 났고, 이것을 걱정한 세번제의 아들이 무력으로 왕을 아그라성의 한편 구석에 13년간 감금하였는데, 멀리서나마 항상 쳐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들에게 감사했을까. 그 결과 왕이 된 아들은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로 왕비도 하나, 술과 담배 등 화려한 생활을 배척 했다고 한다.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 아래 위로는 대리석을 파서 까만 글씨로 새겨놓은 문구들이 있는데 이스람의 코란 13장에 있는 죽음에 대한 구절들이라고 했다.

흰 모래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사원으로 갔다. 이것은 재나교(Jaina)로 불교보다 60여년 전에 생긴 종교로 마하비가 세웠는데, 하늘이 돛이라고 생각하며 별거벗고 살면서 살생을 양고 한 손에는 물 담은 주전자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먼지떨이개를 가지고 다

니다가 가는 길에 벌레가 있으면 털면서 지나간다고 했다. 16세기 메마른 언덕에 지은 성, 밑에서 아델성까지는 가파르기는 해도 5분내지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동네의 코끼리 주인들이 단결하여 억지로라도 코끼리를 타고 올라가게끔 만들어놓았다. 하긴 코끼리의 등 높은 걸상에 앉아서 흔들 흔들 타는 것이 오랜 시간을 가야 한다면 좀 힘이 들것 같았다. 늙은 코끼리는 세월이 가거라 말거라 천천히 걸었고 젊은 코끼리는 빨리빨리 걸어서 늙은 코끼리를 추월하기도 했다. 코끼리는 6-7개의 층계 아래에 있어서 타기도 내리기도 쉬웠다. 여러가지 색갈의 페인트로 단장한 코끼리들이 많은데 코 한번 만져보고 돈을 주니 좋은 수입이라 생각되었다.



워낙 반 사막의 메마른 지역이라 가파른 곳에 성을 짓고 그 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힘들었겠지만 여기저기서 물길을 찾아야만 존재할수가 있었고, 미로와 은으로 장식한 벽들은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인디안들은 옛날부터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며 북반구 남반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고 천체를 측정했다는 것은 그들다운 일이어서 파히 놀랍지도 않았다. 붉은 벽돌로 지은 핑크시티의 정묘한 건축 기술에 감탄을 하면서 지나갔다. 아그라에서 자이프로 가는 길이나 자이프르에서 델리로가는 길도 그런대로 평탄한 고속도로였는데 이 광대한 나라에서 이제 겨우 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듯했다. 델리에서 본 또 하나의 사원은 1145년에 생긴 종교로 흰대리석으로 크게 번영을 상징하는 연꽃(lotus)을 본떠서 만든 마하히교 사원으로, 어떻게 보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연상케 했고 우리의 통일교와 비슷한 것으로 각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있었다. 역시 신을 벗고 들어가서 조금은 정중한 마음으로 묵념을 했다.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쿠툼탑', 하늘을 찌를듯이 높기도 했지만 검붉은 대리석으로 정묘하게 지어놓은 또 하나의 뛰어난 건축기술에 존경과 찬사를 보냈고 저무는 태양과 더불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된 벽들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찍으면서, 정말 좋은 곳에 와서 많은것을 배우고 간다고 서박사(Satya Prakasi Ph.D.)께, 즐거운 여행을 갖게 해주신 서울대 동문 선배님들 특히, 그리고 이 여행을 빈틈없이 잘 마련해 주신 Joanne Han 사장님과 배아프지도 않고 건강히 어려운 여행을 도와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 영원한 촌놈



홍성진(71, 남가주)

이형에게

긴 가을밤입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구료. 고향이 그리군요. 내가 촌놈 이었던것을 알지요? 나는 충청남도 예산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때까지 그곳에서 자랐다고. 우리집은 나무와 흙과 돌과 짚으로 지어진 4 Bedroom, 2 Bath 집이었지요. 앞마당의 들꽃들이, 뒷마당의 과일들이 4계절을 알려주었고, 향나무 울타리가 있고, 텃밭에서 자란 온갖 야채가 식탁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곳의 하늘은 180도로 크고 높고 그곳의 땅은 180도로 넓고 깊었다고. 그 하늘은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시간을 알려 주었고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구름과 비와 천둥과 무지개로 땅과 하늘이 만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소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땅은 산과 들과 냇물과 강을 안고 있었고, 그 속에는 모든 생명들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자라게 해주면서 그들의 죽음까지도 받아 주었습니다. 그 흙과 먼지는 우리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 하늘의 햇빛과 산소와 질소와 CO2는 우리의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어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힘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형! 지금 이곳에서는 이민자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 장원급제를 하고,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미국에 건너와 필라델피아, 뉴욕에서 유학을 마친후에 지금은 LA에서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지금 집은 나무와 Stucco와 Marble과 Granite와 Cement로 지어진 French Style House에서 살

고 있습니다. 잔디와 정원수를 겨우 키울수있는 흙만 가지고 있고, Alarm으로 무장된 Wall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은 내 자동차 유리창만큼과 Office, 유리창 만큼 가지고 있대요. 이 하늘속에 우주를 담기는 커녕 해와 달과 별이 만드는 빛과 시간도 가두질 못하는군요. 모든것을 잃어버렸대요. 이 땅은 온통 시멘트와 철근으로 지은 바빌탑들로, 아스팔트로 덮은 도로들로 모든 흙은 사라져 버렸대요. 땅과 하늘사이 온갖 인간이 만든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푸른 하늘과 초록색 땅을 회색 빛으로 칠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어색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불안한 이민자일 뿐입니다.

이형! 다시 촌놈이 되고 싶어요. '시골'이 그리워 여행을 해보았소 런던, 파리, 로마, 아테네 등에서 사람만 많이 구경하였고, 사람의 시체만 보았고, 그들의 묘지들만 들여다 보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낯선 곳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것을 집에다 놓고 Amazon Jungle, Kenya 들관, Samar Island, Oxaca 와 장백산 산속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과란하늘과 초록색 땅이 맞닿는것을 다시 보았소. 땅이 살아서 움직이는것을 보았소.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온갖 생명의 숨소리들로 가득차 있는것을 보았소. 바로 이곳이 촌놈이 살곳이었고, 고향에 온것 같았습니다

이형! 영원한 촌놈이 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서울'과 도회지들을 오래 서서 다녀 지쳤나 봅니다. 이제 나를 따뜻하고 포근한 땅위에 앉기를 원하대요. 땅 냄새를 맡기위해, 물을 마시기위해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늘을 가지기 위해 땅위에 눕기를 원합니다. 아니 토기장이 이신 하나님 앞에 흙과 먼지로 돌아갑시다. 다시는 그 분이 만든 하늘과 땅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촌놈으로 다시 빛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푸른 하늘과 초록색 땅이 함께 있는 Eden 동산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형! 우리 이곳에서 만나 기쁘게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 행복은 전염병(?)



정유석(64, 남가주)

독일어를 공부하다보면 'Schaden-freude란 표현을 만난다.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chaden'(고통, 손상)과 Freude(즐거움, 환희)의 합성어로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함" 이란 뜻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풍족하면 잘 못 느끼지만 남들이 모두 불행하고 가난할 때 자기 혼자만 행복하고 부유하면 그 행복감이 배가한다는 뜻도 있다. 시원스럽게 뿜린 하이웨이를 운전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런데 반대쪽 프리웨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많은 차가 막혀 수 마일에 걸쳐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기분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2008년 12월 자 영국의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의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20년 이상에 걸쳐 거의 5천명 인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행복은 마치 전염병같이 퍼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대상은 장기간에 걸쳐 심장병 발생 연구를 위해 선택한 매사추세츠주 프랭밍엄이란 지역 주민이었다.

전부터 너털웃음은 남들을 웃게 하고 미소 지은 얼굴을 보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우울한 롬메이트를 가진 대학 일년생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등, 사람의 감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자주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훨씬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 결과다.

연구자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의 자신의 선택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생각되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타인에게 크

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다.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친구, 형제, 배우자나 이웃 사람들의 행복감은 8%에서 34%까지 증가한다. 그 영향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런 행복의 효과는 1년까지 지속되었다.

불행한 감정도 파급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그 진전 속도가 느렸고 범위도 좁다는 결론이었다.

타인이 느끼는 행복으로 자신도 행복해지는 현상은 주위의 친한 친구, 이웃 사람, 그리고 이웃에 사는 친구 순이었다.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파급효과가 높았다. 이에 비해 교감이나 소통이 적은 형제나 친구, 심지어 부부까지 상대방의 행복을 공유하는율이 낮았다. 그러니 이런 경우 "이웃사촌" 이란 표현이 맞는 말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랭밍엄 주민은 비교적 낙천적이고 기독교적 박애사상을 지닌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인은 돈만 있으면 몇 대에 걸쳐 축적한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해왔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사회를 진보시키겠다고 몸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증오하게 만든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진리는 초등학교생만 되어도 잘 아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남들이 눈치 찰까 두려워서 '표정관리'를 잘 해야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 된다. 이런 조건을 고려해 볼 때 '행복 전염설'이란 게 한국에도 적용될 수는 있는 것일까?

참조: '행염 심장 연구'란 1948년부터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운동, 체중조절, 약물이 심장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십 년 간에 걸쳐 조사한 연구다. 미국 심장협회는 물론 보스턴 지역 여러 대학과 병원들이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참여한 대규모 계획이었다.



## 농담골목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에 온 두 이태리 학자가 호텔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문을 읽다가 동료에게 묻기를 "세계에서 제일 썩시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소피아 로렌이지." 라고 하니,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리자베스 테일러인가?"라고 하니. "그 여자는 버지니아 피페리네야, 이 신문에 쓰인 기사에 의하면 100명의 남자가 그녀를 늑혔다고 했어."라고 했습니다. 그 신문에는 큰 글자로 100 MEN LAID VIRGINIA PIPELINE 라고 쓴 제목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송유관을 설치하는데 100명의 노동자가 일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면)

강도가 재판에서 엄벌을 처형 받았습니다. 그가 신문기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지 말아 주시오. 우리 집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게 하고 싶소."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그런데 왜 그런 범죄를 범했지요?"라고 하니,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 그런 줄 모르시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면)

조개를 사다가 물에 담가 두었더니 조개들이 입들을 벌리고 흙을 뱉어낸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남편이 공연한 호기심에 손가락을 넣었더니 조개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도저히 뱉 수는 없고 퐁퐁 부어오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의사를 찾아가자 의사가 위로삼아 하는 말, "손가락이었기에 망정이지..." (이덕송)

한국여행에서 돌아온 중년남자가 강조하기를 성능력은 상대자가 누구인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정)

늙은 죄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무기가 너무 낡아서 강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태)

교회에서 곁에 앉은 사람이 하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길래, 좀 목소리를 낮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저쪽에 앉아 있는 마누라가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듣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세-)

나는 집 사람을 따라 교회에 다니오. 예배당에서 의자를 덮히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소. (한)

Economic Stimulus Package Apparently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as weighed in on the new economic stimulus package....

The Allergists voted to scratch it, but the Dermatologists advised not to make any rash moves.

The Gastroenterologists had sort of a gut feeling about it, but the Neurologists thought the Administration had a lot of nerve.

The Obstetricians felt they were all laboring under a misconception.

Ophthalmologists considered the idea shortsighted.

Pathologists yelled, "Over my dead body!" while the Pediatricians said, "Oh, Grow up!"

The Psychiatrists thought the whole idea was madness, while the Radiologists could see right through it.

Surgeons decided to wash their hands of the whole thing.

The Internists thought it was a bitter pill to swallow, and the Plastic Surgeons said, "This puts a whole new face on the matter."

The Podiatrists thought it was a step forward, but the Urologists were pissed off at the whole idea.

The Anesthesiologists thought the whole idea was a gas, and the Cardiologists didn't have the heart to say no.

In the end, the Proctologists won out, leaving the entire decision up to the assholes in Washington. (김용덕)

#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하여 본 영국 왕실의 비극 (2)

정의철(61, 후로리다)



요크 공작은 Bolingbroke를 헨리 4세로 왕으로 추대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 자기 아들 Aumerle 공작이 Oxford에서 리차드 왕의 충복들인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장과 Carlisle 주교 등과 같이 헨리 4세를 살해할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급히 헨리 4세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의 죄상을 보고하고 그의 처벌을 구한다. 그러나 그의 부인과 아들의 깊은 속죄와 용서의 간청으로 왕은 Aumerle를 용서하고 그를 통하여 반역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데 성공한다.

헨리 4세의 의도를 잘 아는 Exton이 감옥에 갇혀 있는 폐왕을 살해한다. 헨리 4세는 Exton을 추방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지킨다. 이 유혈극으로 왕위에 오른 헨리 4세는 속죄의 뜻으로 성지 회복의 기치를 내건다. 비록 리차드 2세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사촌인 Bolingbroke를 부당하게 국외로 추방하였고 그가 받을 세습 재산과 영지를 몰수하였으며 실정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숙부 Gloucester 공작을 죽인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헨리 4세는 무력으로 그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헨리 4세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이 태조가 고려의 공양왕의 왕위를 뺏은 것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이 태조의 찬탈(1392)이나 Plantagenet 왕조의 말에 Henry Tudor가 살해와 음모로써 왕이 된 리차드 3세를 전장에서 죽이고 새로운 왕조(Tudor dynasty)를 일으킨 경우들은 왕조가 바뀌는 역성혁명임으로 반란이 성공한 이상 후세의 응징을 받지 않지만 헨리 4세의 찬탈은 같은 왕조에서 일어난 일임으로 오명을 벗을 수가 없었다. 또한 이 왕위의 찬탈은 헨리 4세의 백부 Clarence 공작의 후세(딸 Philippa를 통한)의 왕위 계승의 우선권을 앞질렀다는 또 하나의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이 먼 훗날 영국 왕조의 크나큰 비극인 장미전쟁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요크 공작은 조카인 헨리 4세의 왕위 등극을 도와주고 그에게 충성을 하였으나 그들의 손자들인 Richard(후에 요크 공작)와 Henry 6세간에 빚어진 유혈극은 알곤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해준다. (York 공작은 두 아들 Aumerle 공작과 Cambridge 백작을 두었음 - 필자 주)

### Henry 4세 (IV) 1부

Richard 2세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Bolingbroke는 헨리 4세가 되어 성지 회복이란 기치를 내걸고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곧 Wales에서 마법사인 Glendower가 반란을 일으켜 Edmund Mortimer를 생포하고 많은 양민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는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Douglas 백작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Percy가의 용감한 Hotspur가 이를 진압하고 반란군의 폭도들과 귀족들을 생포했음을 보고 받는다. 그러나 Hotspur는 폭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려 왕의 노여움을 샀다. 왕은 Northumberland 백작의 아들로 용맹을 떨치던 Hotspur를 자기의 맏나니 아들 Hal 왕자에 비해 자랑스런 젊은이로 칭송을 하면서도 그의 불충을 괘씸하게 여긴다. 성지회복의 꿈은 이로서 사라진다. Northumberland 백작과 그의 동생

Worcester 백작은 처음에는 헨리 4세를 왕위에 올린 왕의 공신들이었으나 Hotspur는 처남인 Mortimer가 Glendower의 포로가 된것을 왕이 몸값을 지불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헨리 4세는 Mortimer가 마법사인 Glendower에 굴복하여 포로가 되고 그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를 반역자로 보고 있었다. 야심이 강하고 혈기에 찬 젊은 Hotspur는 분별없이 반란의 음모에 나선다. 그의 숙부인 Worcester 백작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반란의 불길이 오르기 시작한다.

Wales의 반란자 Glendower가 이들을 이끌어 반란을 지휘하게 된다. 이에 응해 헨리 4세는 그의 아들 왕세자 Hal(prince of Wales)을 불러 들었다.

Hal 왕자는 Falstaff이란 주정뱅이 기사와 어울려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준엄한 질책과 충고를 받아들여 부왕을 도와 Hotspur의 반란의 진압에 나서게 된다. 왕은 Hotspur의 숙부인 Worcester를 통해 반군에게 항복을 촉구하고 사면을 약속했으나 Worcester 백작은 이를 묵살하고 조카 Hotspur나 형 Northumberland 백작에게 왕의 제안을 전하지 않는다.

드디어 왕군과 Hotspur의 군사가 Shrewsbury에서 진을 치고 전쟁준비에 입한다. 왕은 다시한번 Blunt 경을 Hotspur 진에 보내어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것을 제안한다. Hotspur는 왕의 사면을 교섭하도록 Worcester 백작을 왕에 보냈으나 사후의 보복을 두려워한 백작은 이 뜻을 왕에게 전하지 않고 왕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거짓보고를 함으로써 평화교섭은 끝이 나 버린다. 전투가 벌어져 왕세자 Hal은 용감히 싸워 왕을 위기에서 구하고 단독대결에서 오만하고 성급한 Hotspur를 죽이고 왕군이 승리를 거두어 반란이 일단 진압된다. 평화 제안과 사면을 묵살한 Worcester는 처형당한다. 다음 단계로 왕군은 두 패로 나누어져 왕세자 Hal은 Glendower와 Mortimer의 정벌을 위해 Wales로 떠나고 둘째 왕자 John과 Westmoreland는 York시의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북상한다.

### Henry 4세 (IV) 2부

Northumberland 백작은 병을 핑계로 아들 Hotspur가 일으킨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Shrewsbury 전장에서 죽어간 자기 아들의 장엄한 최후의 보고를 받는다. 또한 York에서는 대주교(archbishop) 및 귀족들(Mobry, Hastings, Bardolph)이 왕에 대한 반감을 갖고 반란을 일으켜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Northumberland 백작은 죽은 아들의 처와 자기 부인의 만류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로 은둔할 것을 결심한다.

왕의 둘째 왕자 John과 Westmoreland는 반란군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털어 주고 사면을 약속하는 등 평화교섭의 이름으로 반군의 해체를 유도한다. 이에 응해 반군이 해체되어 떠나 버리자 왕군은 주교와 귀족들을 체포하고 왕자는 이들에게 반역에 대한 법의 처단을 받을 것을 선언한다. 반군진압의 기쁜 소식을 듣자 병에 들었던 왕은 실신하고 병이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된다. 왕은 신하들에게 세자 Hal을 도와 평화롭고 화목한 왕실을 이루기를 부탁한다. 세자에게는 새로

운 왕이 되어 선정을 베풀것을 부탁한다. 왕은 세자에게 왕 자신은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했으나 세자는 합법적인 왕위 계승을 하게 된다는 말을 남기며 왕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지회복을 부탁하면서 운명한다. 세자 Hal은 헨리 5세로서 왕위에 오르고 어진 임금이 될것을 굳게 맹세한다.

### Henry 5세 (V)

왕위에 오른 Hal은 헨리 5세가 되어 불란서 정복을 계획한다. 그는 고조할머니가 되는 Isabella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가 불란서의 Philip 4세의 딸이었으므로 모계를 통하여 보면 자기는 Philip 4세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이 왕위 계승문제에 관해서 Canterbury 주교에게 문의한 결과 주교는 방대한 법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그의 불란서 왕위 계승권의 정당성을 결론 지워준다. 주교는 또한 대불전쟁의 재정적인 보조를 왕에게 약속한다. 헨리 5세는 불란서의 왕세자(Dauphin 이라 부름)의 대사를 불러 이 뜻을 통고한다. 이미 이에 대해서 본국 왕세자의 지령을 받고 있었던 대사는 헨리 5세의 주장에 대한 답으로 테니스공을 선사함으로써 그를 모욕한다. 이에 노한 헨리 5세는 곧 파병하여 불란서의 Agincourt 전장에서 영국군의 다섯배가 되는 불란서군을 격파하여 대승을 거둔다. 일반 영국 국민과 귀족 신하들은 전쟁수행의 탁월한 재능과 용맹을 갖춘 왕의 권위를 우러러 보았고 헨리 5세는 현왕의 금도를 보인다. 헨리 5세는 이리하여 불란서 왕위 계승권과 통치권을 획득하고 불란서 왕의 딸 Katherine을 열렬한 구애 끝에 왕후로 삼는다. 불란서의 왕과 왕후도 두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바라면서 만족해 한다.

이와같이 헨리 5세는 영국을 가장 훌륭한 세계의 동산으로 만들었고 영국의 별이며 불세출의 대왕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나 9개월이 된 왕자(후에 헨리 6세)를 남기고 통치 9년만에 35년의 짧은 일생을 마쳤다.

### Henry 6세 (VI), 1부

이 극은 헨리 5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귀족 신하들이 선왕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된다. "England never lost a king of so much worth." "He never lift up his hand but conquered." "A king blest of the king of kings."

헨리 5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불란서의 세자는 Orleans를 비롯한 다른 불란서의 영국령을 점령하고 영국군을 무찌르고 명장 Talbot를 사로잡았다. 이때에 시골 양치기의 딸인 Joan of Arc(Joan la Pucelle 이라고 셰익스피어는 불렀음, 처녀 잔이란 뜻임)가 나타나서 불란서의 왕세자 Charles에게 자기는 성모마리아의 부름을 받고 불란서를 영국으로부터 구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왕자와의 단독 결투시합에서 왕자를 이김으로써 왕자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처녀의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임한다.

영국의 명장 Talbot는 포로 교환에 의해 불란서군으로부터 풀려나와 다시 전장에 나갔으나 Joan of Arc가 이끄는 불란서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혼미한 상태에 빠져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불란서군은 영국군을 쳐부수고 대승을 이루어 Joan of Arc의 승리를 구가했다. 한편 영국의 Temple garden에서 Richard Plantagenet (에드워드 3세의 다섯째 아들의 손자로서 아버지 Cambridge 백작이 왕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되어 귀족 신분을 박탈당했음)와 왕의 충신이 Somerset 공작간에 논쟁이 일어나 왕을 지지하는 Lancaster가와 Richard를 중심으로 하는 York가의 두 당파가 생긴다.

Lancaster가의 신하가 가문의 상징으로 붉은 장미를 택하고 York가의 신하가 흰 장미를 택함으로써 두 가문의 분쟁은 후에 장미전쟁(The war of the roses)이라고 불렸다. 어리고 착한 헨리 6세는 자기도 모르게 이 파쟁에 말려들어간다.

리차드의 외삼촌이 되는 Edmund Mortimer(Edmund Mortimer는 Glendower의 사위가 된 동명인 Edmund Mortimer의 조카이며 그의 누이 Anne Mortimer가 Cambridge 백작과 결혼하여 Richard Plantagenet의 어머니 이다. 이 Edmund Mortimer는 Richard의 외삼촌이다. -필자 주)가 왕위를 노린 죄로 투옥되어 있다가 죽음이 가까워 옴을 느껴 자기 누이의 아들인 리차드를 부른다. Mortimer는 리차드에게 자기는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인 Clarence 공작의 딸 Philippa의 후손임으로 넷째 아들 Lancaster 공작의 후손인 현왕보다 왕위의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왕위를 노린 죄로 투옥되었으며 자기를 구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의 매부인 Cambridge 백작(리차드의 아버지)은 처형되었던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기의 장례를 부탁하고 운명한다. 리차드는 자기 어머니 Anne Mortimer가 Philippa의 후손임으로 자기에게 왕위 계승권의 우선권이 있다고 믿는다.

리차드는 자기의 충실한 보호자인 Warwick 백작의 도움으로 현 왕에 의해 공작신분으로 복원되고 영지 및 세습 재산을 돌려받는다. York 공작이 된 리차드는 불란서의 영국 섭정(reagent)으로 임명되어 대불전쟁에 가담했으나 양가의 줄기찬 파쟁으로 전쟁의 수행에 차질이 생겨 영국군이 Bordeaux 전장에서 대패하게 된다. 용장 Talbot도 아들과 함께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다.

양국간에 다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젊은 왕인 헨리 6세와 불란서의 Anjou 공작의 딸 Margaret와의 혼인이 Suffolk 백작에 의해 추진된다. 헨리 6세는 9개월의 나이에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되어 불란서에 있는 방대한 영국 영토를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장미전쟁이란 처절한 당파 싸움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를 보호하여 섭정의 임무를 다해준 숙부 Gloucester도 같은 Lancaster가의 신하와 왕비 마가렛의 모함을 받는다. <다음호에 계속>

## 詩 그리고 詩人

이지현(Mrs. 김신형 56)

詩란  
수줍은 그대 두 눈동자에  
일렁이는 별빛

새벽미명에 희미해진  
별 빛 하나에  
그리움 잠겨있고  
또하나 별빛은  
여름 한 낮  
농염한 칸나의 열정이 있다  
바로 이것이 시 라니까

지구에 동동  
유영하는 것들에 대하여  
또한, 작은 사물들에게도  
터질듯이 따뜻한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명주실로 비단을 짜듯  
아름다운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  
바로 시인이란니까

나는 시인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 있어  
거들고 싶어진다

Oberammergau는 어디에?

Oberammergau는 Bavarian Alps의 조그만 산골마을로 주민은 5천명이 좀 넘는다. 이곳의 주산업은 Wood Carving으로 500년 이상 내려왔다. 이곳은 독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접경지로 근처의 국제공항은 독일의 Munich와 스위스의 Zurich가 거리상이나 접속노선의 효용성으로 보아 제일 편리하고, 하루 왕복이 가능한 도시들은 스위스의 Lucerne, 독일의 Munich, 오스트리아의 Innsbruck을 꼽겠다.

-Passionspiele(Passion Play란?)

1630년대 초기에 유럽은 Plague의 대유행으로 각 지역에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망했다. Plague 유행에 성직자들은 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잘못된 일에 처벌 받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하며 또 헌금을 권장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었다.

Plague가 더욱 진행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시민들의 관찰에 의하면 성직자와 수녀들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직자와 수녀들은 단체 생활을 했고 환자를 살피고 기도해주기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이 많았고 또 장례식 집전에 사망자 contact rate가 높아 Plague 같은 고도의 전염병에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런 민중들의 의심은 왕실과 교회와의 밀월관계에 부정적인 소견을 높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Oberammergau의 elders는 1933년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해주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기리는 연극을 10년마다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Plague Epidemic이 끝나고 Oberammergau의 사망률은 20% 뿐이었다. 1634년 Passion play가 초연 됐고 10년마다 되풀이 되다가 1680년부터는 매 decade 말년에 공연되어 2010년이면 376년이 되어온다. 이곳의 선조들은 관광사업이 Jet Airline이 발명되면서 미래의 주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견도 갖고 있었나 보다.

2010년 Passion play는 오월에 시작해서 9월 말에 끝난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들은 약 1,600명이며 이들은 모두 Oberammergau에서 출생했고 20년 이상 이 마을에 살았거나 이 마을의 어린이들에게만 출연 자격이 부여된다. 연극연습은 울가울부터 시작하고 또 예수님 당대에 costumes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 (2010년) Ash Wednesday 부터는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기 시작한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벌써 2007년에 처음 연습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하고 있다. 한꺼번에 무대에서 는 최대 출연인원은 800명이나 된다.

- 여행준비는 어떻게 하나?

누군가가 여행의 진수는 planning stage에 있다고 했다. 현실의 제약도 안 받고 이용의 제한도 없이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으니, 이런 여행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Self directed free tour plan과 guided group tour 이다.

- Self directed free tour plan

이 플랜의 좋은 점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기간 동안 여행할 수 있으며 많은 관광명소중 좋아하는 곳만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계획을 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종종 resources가 제한되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은 점이다. 또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단점이다. 이 장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자세한 베이스 플랜을 정하고 큰 여행사의 concierge service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서 제 개인의 계획을 소개한다. 제일 처음으로 할 일은 여행사들을 통해 Passion Play의 입장권을 예매하는 것이다. 제게 가장 흥미있는 날은 2010년 9월 30일의 마지막 공연이다. 이번 여행의 출입국 공항은 워싱턴 디씨의 Dulles공항과 독일의 Frankfurt

인 Eagles Nest로 향한다. 이곳은 독일 영토이다. 히틀러는 이곳에서 Eva Braun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소금광산을 방문한다. 원래 샬즈버그의 주산업은 소금이었고 도시 이름도 이 연유에서 지어졌다.

4일: 오늘은 기차로 비엔나로 향한다. 기차길은 Danube강을 따라 비엔나로 간다. 가는 중간에 Melk를 지나

## 2010년에 꼭 가고 싶은 곳 Oberammergau



조 세 진(71, 캔사스)

공항이다. 이용하는 항공기는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며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어워드를 공유하고 있다.

1일: Dulles 공항에서 출국수속 후 오후에 후랑크푸르트를 향해 떠난다.

2일: 아침에 후랑크푸르트에 입국해서 집을 찾고 출국수속을 마치고 지하층으로 가면 이곳이 바로 Eurorail의 정거장이다. 유럽에 일주일 이상 있으면 미국에서 유로레일패스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Munich를 거쳐 Salzburg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는 쾰른 호텔을 추천한다. 타운 중심에 위치해서 시티 관광이나 대부분 걸을 수 있는 거리이며 영어가 잘 통한다. 집을 풀어 놓고 호텔내에 부탁해서 다음날 오전에는 Soumel & Musre tour를 오후에는 Eagles nest tour를 예약한다. 곧바로 울드 타운에 모차르트의 생가를 물어 시티 지도를 받아 Walring town을 시작한다. 생가에 도착하면 그 앞에 노천카페에서 점심을 즐긴다. 생가 관광은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생가에서 다음 방문지는 Zalzburg Castle이다. 걸어 올라가도 되고 케이블카를 타도 된다. 일단 캐슬에는 볼 것이 많고 전시회도 많이 열린다. 그러나 압권은 샬즈버그 주위의 경치와 에워싸고 있는 알프스산 그리고 다운타운의 조감도 이다. 내려오는 언덕에서 보면 수녀 마리아가 있던 수녀원 건물이 보이고 나치 군대가 행진하던 군영자리가 보인다. 영화에서도 군대행진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하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길에 영화에서 Farewell Concert를 한 오케스트라 홀이 있다. 샬즈버그는 Von Karajan 의 고향이기도 하다. 생전에 존 카라얀은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Full Season 후에 고향에 돌아오면 씬머 콘서트 시리즈에 참가하곤 했다고 한다. 끝으로, 마리아와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도레-미송을 부른 계단이 나온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Do a deer를 부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계단 꼭대기에서 캐슬의 프로화일 한 번 더 보고 석양빛에 기념사진을 찍는 좋은 배경이다. 이 계단을 나서면 바로 호텔의 후정이다. 다시 호텔 안내에 부탁해서 오늘밤 음악회를 추천 받고 또 근처의 식당도 소개 받아 시간에 맞추어 저녁시간을 계획한다.

3일: 오전 두 번째 뮤직 투어는 Von Trapp Family Mansion에서 시작한다. 현재는 이곳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호수 대안에서 관람하게 된다. 다음 코스는 샬즈버그 주교관으로 큰딸이 애인과 함께 "I am 16, Going on 17"을 노래하는 Garden Pavilion이 이곳에 있다. 영화에서는 한집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곳이다. 이 투어는 한 30분 떨어진 곳의 결혼식을 거행한 성당에서 끝난다. 오후에는 Hitler의 여름 별장

데 Meit Abbey가 참으로 보이는데 이 수도원의 포도주는 명품으로 알려졌다. 이른 점심시간에 비엔나에 도착하면 인터컨티넨탈을 추천한다. 부동산에서 말하듯이 Location! 로케이션이 좋다. 콘서트 홀이 3분 거리에 비엔나 도심 공원은 길 건너 있다. 산골길을 따라가면 유명한 작곡가의 동상은 이곳에 거의 다 있다. 가장 화려한 동상은 요한슈트라우스의 것이다. 독특하게 이 동상은 황금색으로 칠해졌다. 또 이 공원의 반대쪽 끝에는 힐튼 호텔이 있는데 이곳은 한국의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가 탈북에 성공한 곳이다. 반대쪽으로 공원을 나와 비엔나 콘서트홀을 지나면 지붕에 독수리가 그려진 St. Stephen Cathedral이 나온다. 그 주위에는 많은 노천카페가 있고 비엔나 커피와 초콜릿 케익 또는 Apple sturidle를 권한다. 돌아오는 길은 마리아 테레사의 궁전을 지나 오페라 하우스를 거쳐 오는 것이 좋다. 전차는 Reing Strasse를 통해 원형의 궤도를 돌고 있다. 한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이 타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호텔 안내에서 내일 오전에는 Vienna Woods 관광과 오후에는 Habsburg왕가의 교외별장인 Schonbrunn Palace관광을 예약하고 오늘밤과 내일 밤의 음악회 스케줄을 알아보라. 이곳 방문 중 우리 돈가스의 원조인 Vienna Schnitzle를 시식해 보시라.

5일: 오늘은 예약한 대로 비엔나 우드스와 Schonbrunn Palace를 구경하고 오후 늦게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을 찾아보라. 그가 살던 집은 열 곳도 넘는다. 저축과 노후대책을 몰랐던 그는 수입에 따라 거부의 생활에서 무일푼의 인생까지 다 살았고 말년에는 거지 신세로 장례식도 못하고 흠례스와 함께 집단 매장해 그의 실제 묘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6일: 부다페스트로 일일 왕복 여행을 한다. 옛날에는 두 도시는 다뉴브 강으로 오가고 했었다. 부다페스트는 Tale of two cities로 다뉴브 강 사이로 한쪽 연안은 Buda, 그 반대쪽은 Pest이다. Neo-Gothic 건물인 국회의사당은 불만하다. 또 헝가리 혁명을 기념하는 Hraes Square도 관광명소이다.

7일: 오늘은 기차로 Munich를 향한다. 4-5시간 걸린다. 추천하고 싶은 호텔은 Bayerische hof이다. 샌츠펠 로케이션으로 Munich Cathedral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오후에는 시청 앞 광장인 Marian Platz와 Alte Pinatother (울드 뮤지움)을 찾아본다. 호텔 안내에서 내일은 Neuschwanstein 모레는 로만틱 로드 관광을 예약한다.

8일: 오전에는 King Ludwig 2세가 지은 Neuschwanstein Castle과 Lindahof의 또 다른 궁전을 본다. Neuschwanstein Castle은 미국인에게는 눈에 익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대답은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설계할 때 이 성을 본떠서 디즈니랜드의 왕

궁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차대전 말년에 폴란드, 프랑스, 네델란드에서 수거한 국보급의 미술품을 이곳에 숨겨냈다. Lindahof의 궁전은 작지만 정교하고 조경이 잘되어 있다. 산꼭대기의 저수조에 물을 모아 일정시간마다 이곳 분수로 내려 보내 인공 간헐천이 되어 분수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 오후에는 Oberammergau로 이동해서 Passion Play를 관람한다. 파손 플레이는 오후 2시 반에 시작해서 다섯 시에 휴식을 갖는다. 3시간의 인터미션을 갖고 저녁과 휴식을 취한다. 8시에 다시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난다.

9일: 16세기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Rothenburg로 향한다. 도중에 Ausburg를 지나는데 이곳이 오늘의뱅크 시스템이 고안된 곳이다. 로텐백은 온 마을이 반 목조건물로 지난 500년간 잘 보존해 왔다. 각 상점의 싸인보드가 독특하다. 이곳의 특산품은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이다. 집에 가져와서 매년 성탄절 때 여행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 같다.

10일: 오늘은 마지막 구간인 Munich-Frankfurt이다. 내릴 역은 프랑크푸르트공항역이다. 추천 호텔은 쉐라톤이며 공항 컴플렉스 안에 있다. 오후에는 기차로 공항 역에서 다운타운 역으로 이동한다. 도보관광은 이곳의 상징인 타운 스퀘어와 괴테 하우스를 들린다. 괴테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Weiuar 공화국의 재상을 지날 때 빠른 이곳에서 일생을 보냈다. Financial District 가보면 거의 다 현대식 빌딩이다. 이차 대전 폭격으로 도시가 거의 망가져 전후에 모두 새로 지었기 때문이다. 내일 관광을 오늘 예약하면 좋다. 오전에는 하이델버그 투어 오후에는 라인 강 크루즈를 추천한다.

11일: 하이델버그는 2차 대전에도 손상없이 역사적인 랜드 마크가 잘 보존 되어있다. 대전 중에 독일과 영국은 비밀협상으로 각 나라의 두 개의 대학 도시는 폭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국은 옥스포드와 케임브릿지 독일은 하이델버그와 튜빙겐을 선택했다. 전후 연합군은 도시의 기본 시설이 완벽한 하이델버그를 본부로 정했다. 하이델버그 캐슬은 Student Prince가 촬영된 곳이다. 오후에는 Wiesbaden을 거쳐 Rudestien과 St. Goarhausen 사이에 라인강을 순항한다. 강 연안에는 포도원이 즐비하다. 라인 와인의 주 생산지이다. 또 봉건 영주들의 Castle이 일정거리마다 서있다. Hansa 동맹시대에 강을 오르내리는 상선한테서 통행료를 걷었던 기지가 됐던 곳이다. 종착지에 가까운 곳에 전설적인 로렐라이 언덕이 있어 나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노래가 나온다.

12일: 오늘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Frankfurt Dulles 노선으로 귀국한다.

Guided Group Tour

내년에는 Passion Play가 10년에 한번씩 열리니까 많은 여행사가 안내자를 발간해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다. 수많은 itinery와 각기 다른 여행기간과 비용이 전시되어 있으나 자료를 모아 원하는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 여행사를 예로 소개한다.

(1) Tauck World Discovery는 Luxury Tour로 3개의 itinery를 offer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커네티컷에 있으며 연락은 1-800-468-2825 (2) Brendan은 5개의 itinery를 소개한다. 비용도 적당하다. 연락은 1-800-421-8446 (3) Insight Vacation은 Araheim, CA에 소재하고 있다. 7개의 투어 플랜을 제공한다. 연락은 www.insightvaation.com

동문 여러분 좋은 여행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 초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  
미주동창회 2010년 학술대회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기후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터,  
최상의 서비스 등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확신하오니  
함께 참가하셔도

디즈니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속에 펼쳐지는  
최고급 호텔의  
동문여러분과 가족들  
추억의 장이 될것을  
어린 손자녀들도  
좋겠습니다.

미주동창회장 이 성 춘(70)

**2010년**  
**3월 17~20일**

미리 계획하시고  
꼭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